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2019 가을 · 겨울호

WALDORF  
100

LEARN  
TO CHANGE  
THE WORLD

실천하는 인지학

# 반도르프 교육예술





겨울은 일 년 중 밤의 길이가 길고 낮의 길이가 짧은 계절이다.  
날씨는 춥고 분위기는 고요하며 조용해지고 차분하며 차가운 이성을 갖게 한다.  
한 해 동안 봄, 여름, 가을의 외적인 성장을 거친 뒤 추운 겨울을 견뎌내면서  
내적인 성장을 하고 그 한 해를 매듭짓는 의미가 있다.  
또한 겨울은 모두가 새 생명을 싹틔울 부활의 꿈을 안고 있다고 한다.  
계절탁자를 꾸밀 때 땅속 깊이 스며드는 듯한 짙은 갈색의 땅 위에 차가운 얼음과 새하얀  
눈을 상징하는 흰색과 여러 가지 톤의 파란색을 사용한다.



##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인지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응용 분야들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자 1999년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2000년 3월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실천 분야 가운데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 현안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발도르프 교육예술을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지학센터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21세기 혁신교육 모델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영유아 및 학교 현장, 방과후 돌봄교실, 혁신학교 등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설로 2011년 설립된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은 발도르프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보육과 교육, 자녀 교육을 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양한 강좌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한국인지학출판사는 슈타이너 전집과 발도르프 기본교육서 번역이 절실하다는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긴요한 자료들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7년에 설립된 서울오이리트메움예술원에서는 새로운 동작예술인 오이리트미를 통해 발도르프 교육예술 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목차

## 05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특집

- 06 100주년 기념 행사
- 12 자전거 릴레이
- 15 100주년 세계 현장 스케치

## 19 2019 여름 교사 아카데미

- 20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21 특집 페터 랑 교수의 80회 생일
- 30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졸업식
- 31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 38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 41 집중코스와 특강

- 42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취득과정
- 46 인지학과 예술
- 48 특강 아침시 감상

## 49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 53 응용 인지학의 현장 소식

- 54 부산발도르프학교
- 56 영천금호어린이집
- 58 광주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 59 발도르프어린이집 졸업생 이야기

## 61 빛나는 2019, 여럿이 함께

- 62 슈필라움
- 63 어린이집 평가제
- 64 내부강좌
- 69 센터 소모임
- 70 신간도서 및 도서 소개

- 73 뜨거운 응원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소식지

실천하는 인지학  
**발도르프 교육예술**

2019 가을 · 겨울호

발행인 이정희

편집인 이창미

편집팀 송지윤, 장주현, 허지혜

디자인 김다은

표지그림 바람아래발도르프킨더가르텐

도움주신 분들 김승미, 김태영, 김훈태, 백미경, 여상훈

제작 싱크스마트

발행일 2019년 11월 15일

발행처 (사)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0409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6층

전화 02-832-0523

팩스 02-832-0526

이메일 <http://steinercenter.org>

WALDORF  
100

LEARN  
TO CHANGE  
THE WORLD

# 발도르프교육 100주년 특집

- 06 100주년 기념 행사
- 12 자전거 릴레이
- 15 100주년 세계 현장 스케치



## 발도르프 100주년 축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배움

최분희

(강남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2019년은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가 문을 연 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발도르프 교육이 시작된 1919년은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을 외치는 소리가 높았던 때였고 독일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을 추구하여 난관을 새롭게 극복해 가고자 하는 교육자들과 의식 있는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 덕분에 어린이들을 인간 본성에 맞게 바르고 밝게 키우려는 발도르프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교육 환경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오늘날 발도르프 교육은 2004년 유네스코가 인정한 살아있는 혁신 교육으로 널리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대한민국에도 전국적으로 발도르프 교육기관이 만들어져 교육의 발달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발도르프 100주년 연합기념축제를 정리해 보면, 먼저 세계 각국의 행사에 발맞추어 우리 한국에서도 발도르프 100주년 연합기념축제 준비 기획팀을 만들어 행사를 준비하였다. 부산, 대전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들과 인지학연구센터 등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뜻을 모았고, 이를 위해 지방의 각 학교 선생님들까지 매일 서울로 올라오셔서 축제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기획팀은 2,000여 명이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9월 첫째 주를 목표로 장

소 선정과 예산 사용 계획을 세웠으며, 질 높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경에 서울 지역 행사 후보지 10여 곳 중 서울 성수동의 “서울숲”으로 장소가 확정되면서 계획이 한층 구체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는 100주년 기념 오이리트미 공연과 미디어 관련 초청 강연, 인지학 포럼이 진행되었고, 전국 단체나 학교에서도 개별적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발도르프 100주년 연합기념축제 준비 기획팀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동영상을 번역하여 공유하였고, 웹 포스터 홍보 영

상과 함께 “발도르프 학교가 함께하는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에너지를 아끼고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깨끗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자는 포스터가 제작되어 각 학교와 단체에 배부되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벌이는 달리기 릴레이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학생들의 자전거 릴레이를 계획하면서 본격적인 100주년 기념축제가 시작되었다. 자전거 릴레이는 자유원정대라는 이름으로 7월 15일 아침 발도르프 학교 6, 7, 8학년 21명의 아이들과 8명의 교사, 학부모가 5박 6일 일정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자전거 릴레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100





주년 기념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드디어 8월 31일 전국 발도르프 학교의 학생과 부모님, 각 지역의 발도르프 교육 관련 단체,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연합회와 유아교육연합 등 유아교육단체들이 서울숲에 모여 행사를 가졌다.

전국 발도르프 학교 15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본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교사연합 선생님들의 합창이 고요하게 울려 퍼져 넓은 잔디공원을 채웠으며,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소개와 함께 “평화의 춤과 시 ‘구름 뚫고 비추는 이’의 낭송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오이리트미 공연이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며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사정이 어렵다. 이런 각박한 환경 탓인지 세간에서는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혹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럴수록 아이들을 바르고 밝고 행복하게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교육을 통해서만 국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발도르프 교육이야말로 미래 아동교육의 대안이고 진정한 교육의 길이라 할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배움에서 새로움을 향해 함께 가는 2019년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을 뒤돌아보며, 전 세계

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이끌어 내신 교육자들의 뜻을 기리고 발도르프 교육의 확산을 위해 애쓰는 교육자들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또한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심하시고 수고하신 발도르프 100주년 연합기념축제 준비 기획팀과 전국의 발도르프 가족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



## 발도르프 100주년 기념행사 후기

위지선  
(오이리트미 1기 재학생)

인간에 대한 진정하고 보편적인 앎을 바탕으로 세워진 발도르프 학교가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2019년 현재 삶의 근간이 된 발도르프 교육이 100년이나 전에 생겼다는 것도 새삼스럽지만, 100주년을 같이 감격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12년 전 발도르프 교육을 처음 접했을 때는 오이리트미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만 하였는데, 어느새 내가 100주년 행사에서 오이리트미 공연을 하게 되었다.

서울오이리트미에 들어온 지 3년. 행사 일주일 전에 여름 연수가 끝났다. 연수가 끝나기 5일 전쯤부터 슈타이너가 오이리트미스트들을 위해 남겼다는 시 "평화의 춤"을 배웠다. 이해하기 쉽진 않았지만 처음 읽은 순간부터 계속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던 시를 드디어 처음부터 끝까지 만났고, 마음 한편에 심어 두었다.

그러던 중 우리가 100주년 행사에서 마지막 10분을 맡아 마무리 공연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연수 후의 일정을 잡아버린 동기들도 있었고, 게다가 "평화의 춤"으로 공연을 해야 한다니... 아직 독일어 시도 다 외우지 못했고, 언어와 발동작이 맞지도 않는데 말이다.

설마 했지만 사실이었다. 불쌍한 얼굴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이 안쓰러우셨는지, 데커 선생님께서 시 오이리트미만 '구름 뚫고 비추는 이'로 바뀌어서 무대에 오

르도록 하셨다. 아휴, 하마터면 제대로 망신살이 뻥칠 뻥했다. 데커 선생님은 상황마다 누가 이끌어야 하는지 용의주도하게 정해주셨다.

드디어 행사 당일 아침, 허둥지둥 서울 숲 공연 장소를 찾아갔다.


이미 와 계시던 신현이 선생님께서 모두에게 공연 때처럼 의상을 갖춰 입고 집결하라고 하셨다. 햇살 좋은 아침에 하얀 날개옷을 입고 공원을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도 무대 뒤 대기 장소까지 분위기와 자세를 유지하며 내려오라 하셨다. 10시부터 11시까지 리허설 시간 동안 입장, 퇴장 연습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야외공연이라서 리허설을 할 때도 시끄러워 피아노 소리가 잘 안 들렸으니 공연 때도 역시나 그럴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연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동기들은 흥분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후기를 쓰면서 그 공연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되 돌아보니 선생님들이 생각났다. 미하엘 레버 선생님, 하이오 데커 선생님, 임동원 선생님, 한미경 선생님, 신현이 선생님, 신승혜 선생님. 수업을 받을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었다. 시를 배울 때 잘 안 되면 우리는 그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했고, 정말 헉헉거리며 지쳐가는데 선생님들의 낭송은 매번 열정적이고 예

너지로 꽉 차 있었으며, 심지어 연습이 거듭될수록 시는 짧아졌다. 항상 하는 기본 연습들은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속에 새로움이 담겨 있었다. 3단계 걸음 100번이면 100번 모두에 집중이 있고, 정성이 들어 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공연 날 우리는 야외 리허설을 위해 의상을 차근차근 갖춰 입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대기 장소에서도 무대 위치를 진지했고, 리허설 시간에 입, 퇴장하는 매 순간에도 정성을 들었다.

공연 시작 전, 의상과 분장을 마친 동기들과 모여 I, A, O를 하고, "Ich denke die Rede"를 하고, 공연에 올릴 시를 연습했다.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많은 것 중 하나가 그것이라면, 이번 100주년 행사 속 우리들에게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것 중 하나가 그 속에 있었다면, 단 6분의 공연 속에서 우리는 교사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 





## 발도르프 100주년 축제 심청전 공연을 마치고...

임숙자

(반석어린이집, 영유아교육예술가 4기 졸업)

맑은 하늘이 눈부신 8월 마지막 토요일, 그날의 서울숲 초록빛은 더욱 싱그러웠다. 발도르프 100주년 축제를 위한 날, 모두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어쩔 이리도 날이 좋을까. 하얀 천막들이 저 멀리 잔디광장을 물들였다.

보이지 않은 곳까지 깃든 모두의 수고와 정성은 악기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고학년 학생들, 스텝 이름표 하나하나에도 스며 있는 듯했다.

우리 인지학센터의 인형연구모임에서는 심청전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공연장에서 하는 인형극인 만큼 인형의 크기를 키워야겠다는 결단 속에 다시 인형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여러 날의 바느질로 새롭게 탄생한 인형들은 무대를 꼭 채웠다. 한 땀, 한 땀, 한은숙 선생님이 곱게 지어 주신 우리 옷을 입은 인형들과 다시 친해지고 보니 더욱 정겹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짐을 옮기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커뮤니티센터에 도착한 우리는 의자를 새롭게 배치하고 책상을 나르며 기분 좋은 땀을 흘렸다. 총 세 번의 공연이라는 약속된 시간만큼 부담의 크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은 100주년 축제가 아닌가. 이 멋진 100주년 교육운동 축제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1시, 2시, 3시의 3회 공연은 발도르프 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일반 관람객들의 고요한 준비와 협조, 조용한 눈빛과 몰입도 덕분에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


었다. 마지막 공연 때는 70여 분의 관객이 빼곡히 들어와 가장 많은 분들과 함께 인형극을 마칠 수 있었다.

우리 공연에 앞서 라일락 팀이 라이어 연주로 고요하고 아름답게 무대를 열었고, 곧 인형극 시작을 알리는 킨더라이어와 피리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고 분명하면서도 그림을 그리듯 동화를 읽어가기 시작했다. 악기를 연주하는 선생님, 인형을 움직이는 선생님들은 심청이의 어린 시절부터 심청이 언뜻 사이로 나오며 다시 인간세계로 오는 장면 하나하나에 극에 생기를 불어넣으려 애썼다.

심청이 왕비가 되어 아버지를 만날 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심청이 왕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로 인형극을 마치고, 고요한 라이어 소

리와 노래 속에서 실크 천으로 천천히 덮이는 무대는 관객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졌다. 공연장을 정리하고 돌아보기를 한 후 축제의 메인 무대인 잔디광장을 떠났다.

11년 전 처음 방문했던 인지학센터의 수채화실이 떠오르고, 그 때 그 첫 마음과 감동을 가슴에 담은 채 함께 10여 년을 쉬지 않고 발도르프 공부를 하는 나와 우리 동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현장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할 것이다. 지구 반대편 슈타이너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온 지난 100년,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축제의 날. 수많은 선배들이 선물한 보이지 않는 노고와 사랑이 우리를 거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가득한 하루였다. 



## 유네스코에서 공식 지정한 21세기 선진 교육 모델 발도르프 100주년 기념축제 도서전시 행사를 마치고


송지윤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2019년 8월의 마지막 날,

서울숲 가족마당의 하늘은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을 축하하듯 눈부시게 맑고 아름다웠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날씨로 축제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전국의 발도르프 학교와 기관이 모여 100주년을 축하하는 축제 마당이 열렸다. 각 부스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었고, 악기 연주, 합창, 인형극, 오이리트미 등 듣고 볼 것도 많아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도 다양한 서적을 전시하고 홍보하였는데, 특히 발도르프 교육 관련 서적인 《발도르프 육아예술》, 《발도르프 아동교육》, 《발도르프 성교육》, 《작은새가 노래하네》, 《유아 그림의 수수께끼》 등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세상을 바꾸는 배움'을 함께하는 사람들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녀와서

김현경  
(부산발도르프학교 교사)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개는 좀 끼고 햇볕이 짙쟁하지 않게 해주세요.”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 기념축제 마지막 회의를 하며 우리가 모두 기도하기로 한 내용이다.

8월 31일, 별은 뜨거웠지만 밝았고, 잔디 정비 후 우리가 처음 쓴다는 가족마당은 푸르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슴에, 혹은 등에 이 아름다운 말을 품고 서울숲에 도착했다.

여는 공연을 준비하는 오케스트라 소리가 들리고,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캐치볼을 하기도 하고, 전시공간을 둘러보기도 했다. 처음으로 발도르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두 발도르프 교육을 만난 순간이 다를 테고, 또 마음에 와 닿은 지점도 다를 테고, 지금 갖고 있는 마음도 다 다를 것지만, 교육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담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학교에 와서 더듬더듬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알아가던 7년 전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왜 에포크는 4주를 하는 걸까? 올림피아드는 대체 왜 하는 거지? 우리는 꼭 상급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왜”라는 고민을 되뇌었던 시간들을 지나 나는 지금 서울숲에 와있다. 발도르프 교육이 시작된 지 100주년을 축하하고 마음을 담아 다른 학교 선생님들, 발도르프 교육기관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기분이었다. 발도르프 교육이 내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아침공부(주기 집중수업/에포크)의 예술성이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있고, 또 공부시간의 들숨과 날숨을 고려한다면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았다.

이런 지난 세월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순간순간 생각이 난 것은 비단 나만은 아니겠지. 2019년 8월 31일. 이번 100주년 행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이날은 지난 시간을 떠올리고, 현재를 고마워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부산발도르프학교,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푸른숲 발도르프학교의 오케스트라 식전공연으로 우리들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우리들을 감싸주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본 공연의 첫 순서는 학생들의 오케스트라에 맞춰 교사연합회가 부른 4중주 <평화의 춤>이었다. 전국의 발도르프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부르는 노래 속에 몽클함이 올라왔다.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 속에 살아가며 평화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인지 더 큰 감동이 된 것 같다.

교사연합회의 노래가 끝나고 학부모 리코더단, 학부모연합의 합창, 학년별 공연과 학교

별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100주년 행사의 가장 반짝이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함께'라는 것이다. 학교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무대를 만드는 작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있음이 느껴졌다. 100주년 행사기획팀 또한 그랬다. 학교별, 단위별 대표들이었는데 모두 교사나 교육을 담당하며 '함께'의 가치를 더욱더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인지학센터의 오이리트미 공연과 다 함께 부르는 <평화의 춤> 합창으로 본 공연은 끝이 났다.

햇볕이 따가워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열이 틀어지고 공연을 마쳐야 하는 시간이 지나 마음을 졸여가며 마지막 공연을 맞이해야 했지만, 그리고 공연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재미없다는 청소년들의 투덜거림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이 무엇이 중하겠는가. 우리가 만났고, 교육의 지향점을 함께 가져간다는 것이 중하지 않겠는가.

Learn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배움. 우리는 그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 자유원정대의 탄생과 자전거 여행

홍윤문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1기 졸업생)



## 힘들이기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힘들다'는 말을 이 세상에 내놓은 적이 있을 것이다. 장시간 운전 을 했을 때, 평소에 오르지 않던 산을 오를 때,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 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힘들다고 할 지 모른다.

어떤 경우에 힘이 들고, 또 이 힘들다는 것이 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을 것 이다. 두 번째는 정신적, 내면적으로 힘든 경우 가 있을 것이다.

육체의 경우 동일한 자극이 반복적으로 이 어지면 그 자극에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이 겨내기 위해 근육이 생성됨과 더불어 힘이 들면 서 고통이 줄어들는다. 그리고 그 일을 어렵게 느 끼지 않게 된다.

반면에 정신적 자극은 조금은 다르게 작용 한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 자극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 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것 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자극이 더 이상 고통 스텝지 않게 되고 여유 있게 자극에 반응 할 수 있게 되었다면 힘이 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그와 유사한 자극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그 자극 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들어 있기에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다.

## 자유원정대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도르 프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하여 발도르

프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발도르프 교육에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새로운 힘을 들이는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은 여러 학교 아이들과 어른들이 의지를 모아 자전거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었다.

2019년 3월에 몇 명이 모여 회의를 했고, 자원봉사단은 새로운 힘을 만들기 위해 힘든 작업들을 계획했다. 아이들이 방학하는 7월에 5박 6일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시작하여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길지도 짧지도 않은 거리를 이동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는 그 길을 자전거로 이동해 본 경험이 없었고, 우리가 마주하게 된 모든 상황은 낯설었고, 그 상황들은 모두에게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자극을 주었다.

### 아이들의 힘들이기

아이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규칙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앞사람이 멈추면 그 뒤는 모두 멈추는 것이다.

세 번째 규칙은 앞사람이 속도가 느려도 빨리 가라는 압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는 앞사람의 바퀴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개의 규칙을 지키며 대열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들은 이제 힘들 준비가 된 것이다.

앞에서 늦게 간다고 불평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 자꾸 뭐라고 한다고 불평하는 아이는 외부 자극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들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너무 자주 쓴다, 속도

가 느리다고 투덜대는 아이는 자기 뜻을 벗어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는 중이고,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근육을 만들려고 육체적, 정신적 힘을 들이는 중이고, 더 가고 싶다는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주변의 의지에 맞춰 조절하는 힘을 들이는 중이다.

대열을 이루어 자전거를 탈 때는 대열의 어느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상황이 달라진다.

후미에서 계속 처지던 아이를 선두로 내보내면, 그 아이는 대열과 상당이 떨어져 앞으로 가버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난 "기린목이 되었다"고 표현한다. 또 앞의 아이에게 빨리 가라고 압력을 넣던 아이가 대열의 선두에 나서는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며 전체 대열의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아이는 대열 간격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기도 한다.

누가 선두에 서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모두가 한 번씩 선두에서 서서 대열을 이끄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느끼고, 전체 대열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들인다. 그래서 5박 6일의 말미에는 아이들이 많은 힘을 들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두에서 대열을 평화로이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차가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선두에 서게 하면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는 아이들이 있다. 특히 여러 학년이 함께할 경우 저학년들은 선두에 오래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다.

### 어른들의 힘들이기

어른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힘을 들이며 현재의 위치까지 이르렀다. 대부분의 경우 어른들은 내재된 힘으로 주어진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된다.

이번 행사 중에는 다양한 경험과 힘을 가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 서로 가지고 있는 힘이 달랐기 때문에 어른들 또한 조율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가 참고 인내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극복했다. 모두가 역할을 나누어 맡았는데, 어떤 역할은 한 사람이 5박 6일을 계속 한 경우도 있었고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매일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아름다웠던 5박 6일의 일정은 우리에게 크진 않지만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어른들은 개인적으로 힘이 들었던 사람도 많았다. 나 또한 큰 힘이 들었다. 선생님들과 작업을 한 적도 있는 단위학교의 학부모들도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전체 퍼즐을 맞추어 나가

는 대단한 경험을 했다. 미미할 수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아름다움과 감동을 만들어 냈다.

우리 안에는 선함과 악함이 동시에 존재한다. 악함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온다. 그러나 선함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자유원정대는 선함이 세상에 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들일 것이다. 이 세상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힐 것이다. 자유원정대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 이제 막 시작했다. 세계 발도르프 학교들이 이 모험에 연대하는 그날까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7월 자전거 여행 일정과 경로**

일정: 7월 15일 ~ 7월 20일

출발지: 경남 김해 봉하마을

경유지: 김해 - 대구 - 칠곡 - 구미 - 상주 - 문경 - 수안보 - 충주 - 강천보

도착지: 한강문화관(강천보)

자유원정대 밴드: <https://band.us/band/75225229>

자유원정대가 탄생하기까지 함께하신 이상아 선생님을 비롯한 각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원정대의 탄생은 결코 몇몇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함께 자전거를 타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을 응원해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독일의 특별했던 오이리트미 공연을 기억하며 독일 베를린 템포드롬에서 열린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 기념 오이리트미 공연

임하연

(독일 오이리트메움 슈투트가르트 재학)

2019년 2월 6일 아직 추운 독일의 겨울,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에서는 베를린에서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릴 오이리트미 공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19일에 베를린의 다목적 행사장인 템포드롬에서 안토닌 드보르작(A. Dvořák)의 교향곡 9번, "신세계 교향곡"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이 곡의 1악장에 맞추어 아름다운 오이리트미가 공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독일의 오이리트미 학교 4곳(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비텐, 알라누스)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드보르작의 교향곡을 음악 오이리트미로 완성한다는 것이 특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을까지 긴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주 1~2회 1시간이 조금 넘는 공연 준비 시간은 생각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진행되는 학교 수업이 우선이었고, 더군다나 그 중간에는 방학이 있었으며, 5월에 비텐에서 있는 큰 오이리트미 공연을 위한 준비와 4학년들의 졸업 공연 준비 등으로 2학년~4학년 학생들이 모두가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드보르작의 음악은 우리 마음에 안에 일찍부터 깊이 자리하게 되었고, 오이리트

메움 슈투트가르트 임동원 교수님의 지도 아래 모두가 즐겁게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전문 오이리트미스트들에게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은 많은 사람과 시간, 비용이 필요한 까닭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생 시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이리트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값지고 행복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학년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 차이도 보였고 후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하는 24명의 학생 모두가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호흡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악기들이 모여 있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을 오이리트미는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시킬까?'라는 궁금증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해소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맡은 악기의 특성과 멜로디, 리듬을 표현하면서, 서로 다른 소리의 움직임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갑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음악의 느낌을 움직임으로 표현해내고, 시간이 갈수록 그 표현들을 더 풍부하고 생생하게 만들도록 알고 닦습니다.

우리는 9월 15일 베를린으로 출발했습니다. 템포드롬의 큰 무대와 3000석이 넘는 엄청난 크기의 관객석은 다행히 걱정했던 것만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곳 독일, 인지학이 시작되고 발도르프 교육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 나라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특히 오이리트미를 공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선다는 것은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과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부모님, 가족들의 모습이 마구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무대 뒤의 준비 시간과 기다림은 정말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공연이 시작되고 난 뒤의 기억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평소보다 엄청난 밝기의 조명에 눈이 부신다는 생각도 잠깐, 곧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인원으로 시끄러울 것이라고 상상

했는데 무대 주변의 관객석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학생들이 1악장의 '도입부'로 무대를 엽니다. 그 뒤 베를린 학생들이 공연을 하면 다시 슈투트가르트 학생들이 이어받아 '제시부'의 반복 부분을 말합니다. 비텐, 알라누스 학생들의 발전부, 재현부 순서로 공연을 이어간 후, 마지막에는 네 곳 학교 학생들이 모두 나와 마지막 화음들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렸을 때 다시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큰 공연을 마치고 다시 슈투트가르트의 일상으로 돌아와 저는 지금 오이리트메움에서 마지막 4학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학교를 처음 세운 그 현장이 제가 매일을 보내는 곳입니다. 매일, 매순간을 오이리트미와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 행사를 다녀와서

박부자  
(오이리트미 1기 재학생)

“인생의 미로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는 사람만큼  
교육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  
-괴테

교육은 인생에서 길을 잃고 헤매본 사람이  
말아야 한다. 인식의 문제로 고민하고 무상을 극  
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교육을 행할 수 있다. 장  
시간 비행을 위해 괴테의 책을 한 권 챙겼다. 짧  
은 문장을 읽고는 긴 생각에 잠긴다.

그러했다.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알



게 된다. 어떤 일이, 어떤 길이, 어떤 사람이, 어  
떤 장소나 공간이 미래로부터 현재의 자신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기도 한다.

몇 번 방문하는 독일이지만 그때그때 관심  
사나 느낌이 다르다. 아무래도 올해는 발도르  
프교육 100주년인 만큼 국제적으로 기념행사  
와 축제도 많고 국제적 교육 연대와 친화력을  
키우는 행사가 어느 해보다 풍요롭다. 발도르  
프 교육을 끈으로 세계는 하나임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에서는 8월 31일 서울숲에서 뜻 깊은  
100주년 행사가 열렸고, 7일 후 독일 슈투트가  
르트에서는 국제적인 100주년 행사가 개최되었다.

1919년 9월 루돌프 슈타이너는 독일 슈투  
트가르트에 있는 발도르프 아스토리아 담배공장의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하  
였는데, 그것이 바로 "울란츠회에 자유 발도르프  
학교"다. 이 학교로부터 발도르프 교육이 시작되  
어 전 세계로 확산, 전파되어 나갔다.

2019년까지 이어진 100년의 역사는 바로 이  
첫 학교로부터 만들어졌다. 물론 우리도 100년  
의 역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내에 있는 공연장 리더할레의 베  
토벤홀에서 열린 100주년 개막 행사. 리더할레는 발  
도르프 학교 출신이 설계한 곳으로, 매우 실용적이고  
짜임새 있어 건축상을 받기도 한 시설이다.

100주년 축하를 위해 주지사, 시장과 발도르프 관련 내빈, 그리고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손님들, 울란츠회에 학교 학생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이 자리하였다.

100년의 역사에 어울리게 연로하신 발도르프 학교 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참석한 것이 눈에 띄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이어온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참 부럽고 따사로웠다.

“아리랑”의 선율이 역사적인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 기념 행사장을 채웠다. 뜻밖의 공연에 가슴이 벅찼다.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사이사이에 선생님들이 완전히 학생들과 하나가 되어 진지하게 연주를 이끌어 가신다. 어느새 나도 그들의 손끝이 되어 한 음 한 음 애를 쓰며 함께 울리고 있었다. 하나의 음을 울리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 연습하고 노력했다는 선생님 말씀에 참석자들 모두 감동의 박수.

기념식에 이어 다양하고 재미난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리더할레는 100주년 축제 열기로 뜨거웠다.

그날,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매 공연마다 감동의 박수를 보내는 실버 물결 사이로

100년 전 발도르프 학교를 창립한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의 슬로건을 다시 생각해 본다.

“Learn to change the world” 



리더할레 중앙홀에 걸린 전 세계 발도르프 학교 분포 지구본이 회전하고 있다. 불이 들어 온 곳이 세계 곳곳의 발도르프 학교인데, 한국은 네 곳, 10개의 학교로 나와 있다.



한미경 선생님이 교사로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질버발트 발도르프 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한국 동화 "구렁덩덩 신선비"를 독일어로 번역, 공연하는 장면.



저학년 연극 공연에 상급반 언니, 오빠들이 도우미가 되어 함께하는 모습. 위아래에서 함께 배움이 일어나는 모습은 발도르프 교육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발도르프 학교 장애인 학생들의 연주.



울란츠회에 12학년 오이리트미 공연

# 2019 여름 교사 아카데미

- 20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 21 특집 페터 랑 교수의 80회 생일
- 30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졸업식
- 31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 38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2003년 여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여름에는 10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유아(0-7세)의 본질과 발달을 새롭게 이해하고 특수아동을 포함한 유아기의 발달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 과정입니다. 총 6학기로 진행되는 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모든 필수 학점을 포함해 900학점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2019년 여름 아카데미는 10기의 첫 번째 학기였습니다.

**기간** 2019. 7. 31(수) ~ 8. 6(화) 8:30-18:30 (74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 \*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 발도르프 교육학

비르기트 크로머 (Birgit Krohmer) / 통역 이정희

0-3세 발달론

영아를 위한 좋은 환경

돌봄과 자유놀이

부모의 동반

## 교수방법론

마리 루이제 콤파니 (Marie-Luise Comani) / 통역 여상훈

영유아의 본질 이해하기

본보기와 모방

발도르프 현장교사의 역할

## 아우디오패디

듣기를 통한 내면의 고요함을 연마하기

노래부르기

조화로운 움직임을 통한 창의성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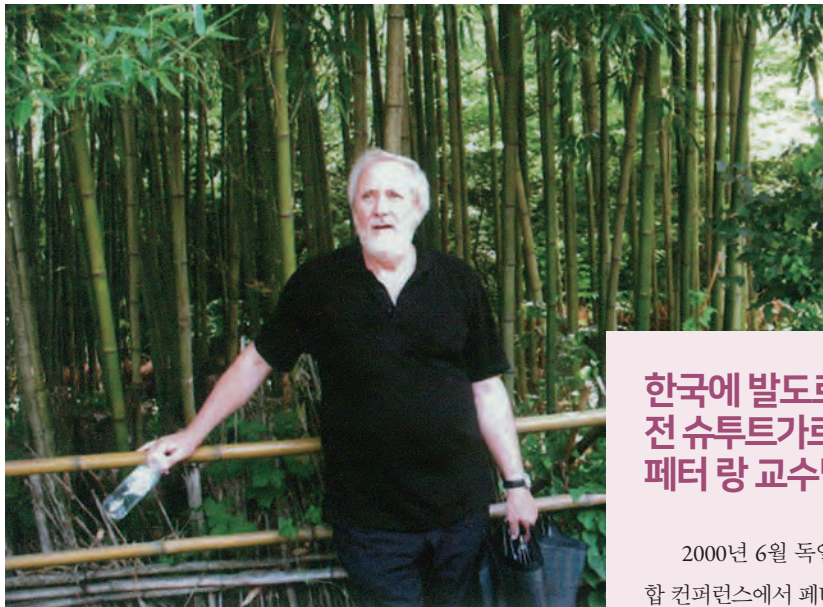
## 수공예

한은숙

매듭인형 만들기

#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축전 페터 랑 교수님의 80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를 대표하여, 이정희 올림 -



2008년 담양 현장 탐방

## 한국에 발도르프의 씨앗을 심은 전 슈투트가르트 유아교육대학 학장 페터 랑 교수님

2000년 6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국제발도르프유치원연합 컨퍼런스에서 페터 랑 교수님과 첫인사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열망"을 전달했고, 2002년 가을 그는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의 행동력으로 "발도르프 유아교육 예술가 전문과정"이 2003년 8월 대방동에서 시작되었다. 스물여덟 번 여름과 겨울 아카데미 수업을 통역하면서 나는 그의 조건 없는 헌신과 세계 시민정신을 목격했다. 고관절 수술 직후 회복기에도 한국행을 택한 그의 책임 의식은 연수생들 가슴에 발도르프의 씨앗을 깊이 심어 놓았다. 그동안 우리 몸에 간혀 있던 그 씨앗들이 하나씩 짝을 띄우고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물과 빛과 공기와 거름을 주어야 할 때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유치원연합 발행  
“2019년 10월 8일자 회람”의 축하 기사

머리로는  
아무도 하지 않은 생각을 시도하고,  
발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에 감히 올려라.  
이로써 자기 자신을 창조하라.  
누구든 무엇이든  
너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프리드리히 실러



## 페터 랑 교수의 80회 생일을 축하하며

페터 랑 교수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세계시민이다.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다움을 위해서라면 그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엄청난 열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하루를 열 때면 늘 그가 참석자들에게 읊어주는 시들 가운데 하나를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드로 올린 것도 그래서이다.

페터 랑 교수는 1939년 10월 7일에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만하임에서 운송업 직업교육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하이델베르크의 연극학교를 다닌 뒤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서 졸업시험을 치렀다.

“풀은 잡아당긴다고  
더 빨리 자라지 않는다.”

그는 비헤른 학교(지금의 하노버 청소년사회복지대학)에서 청소년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하노버 근처 노이슈타트 암 뤼벤베르게 시의 청소년복지국에서 수습을 거쳤다. 수습이 끝나자마자 플로히엔 시의 청소년복지과를 맡아 주로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를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해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 1970년대부터는 프라이부르크 시의 "청소년의 집" 관장으로 일했다. 그 시기에 그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발도르프 교육학을 만난 것도 그 대학이었다. 그 뒤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발도르프 현장을 방문하면서 발도르프 교육을 깊이 알게 되었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판타지 능력을 발달시키고  
돌보는 일이 대단히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근무를 마치고 페터 랑 교수는 한 해를 쉬면서 슈투트가르트 인지학 세미나를 찾아가 프랑크 타이하만 교수 밑에서 공부했다. 그런 다음 1981년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유아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교육학, 심리학, 발도르프 교육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장래의 유아교육자들을 양성하는 일에서 페터 랑 교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학생들에게 영유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인식시키는 일이었다. 모든 아이들은 개별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며, 개별체로서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소질, 성향, 관심, 장애를 가지고 커서 자신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이유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이다. 그런 감각은  
자기 자신의 지각 능력을 신뢰할 때  
발달하며,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빙성 있고 왜곡되지 않은 인상들을  
필요로 한다.”

유아교육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처음 몇 해 동안 헬무트 폰 퀴겔겐 교수가 그를 위해 일종의 멘토 역할을 했다. 3년 뒤 폰 퀴겔겐 교수가 페터 랑 교수에게 물었다. "랑 교수, 이 대학 학장직을 맡아줄 수 있겠소?"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어 페터 랑 교수는 학장직을 맡았고, 2015년까지 21년 동안 그 직책을 수행했다. 그는 국제발도르프유치원연합의 이사이기도 했다. 그가 교육대학에서 일하는 시기에 독일의 발도르프 유치원 운동은 지역화되었고, 발도르프 교육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사회적인 연대는 배움으로 가능해진다.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다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란 생각할 수 없다.”

페터 랑 교수는 바로 이 사회적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경험과 지식으로 독일의 여러 지역과 전 세계 곳곳의 발도르프 교육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여러 발도르프 교육 행동가들과 함께 세계 각국에 발도르프 교사양성 기관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우크라이나 오데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에스토니아 탈린,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한국 서울, 일본 나수, 터키 이스탄불 등의 교사교육 기관이 그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양성된 발도르프 교사들이 부모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아직은 어린 싹이 훌륭한 발을 만났음을 증명하고 있다. 터키를 비롯한 곳곳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리라는 확실한 희망이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2005년에 페터 랑 교수는 마리 루이제 콤파니, 만프레트 디츠, 클라우디아 매킨, 마티아스 노이, 도리스 바이텐함머 등과 함께 사단법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유치원연합을 설립하고, 여러 해 동안 이사로 활동했다. 같은 시기에 그는 사단법인 "미래 만들기 - 바이에른 남동부 발도르프 교육" 연합의 이사로 일했다. 이 연합은 전국 연합의 회원 단체로, 자유발도르프학교 연맹과 협력하고 있다.

페터 랑 교수의 일생은 지역에서 맡은 활동과 발도르프 교육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이라는 우리 운동의 두 기둥을 조화롭게 돌본 모범 사례일 것이다.

“발도르프 교육은 결코 기술 문명에 적대적이지 않다.  
 … 우리는 다만 아이들이 컴퓨터를 만나고  
 사용하는 올바른 시기, 방법, 목적이 어떠한지  
 묻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활동에 더하여 페터 랑 교수가 세상에 내놓은 것이 《유년기의 권리 - 또 하나의 인권》 시리즈이다. 또한 마리 루이제 콤파니 교수와 함께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공동편저자이다. 지금까지 이 책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리투아니아어, 한국어, 일본어, 히브리어 등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터키어와 스페인어 번역판도 머지않아 출간될 예정이다.

80회 생일을 맞은 페터 랑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특히 이곳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과 사단법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유치원연합을 위해 바친 그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





## 0-3세 발달론, 영아를 위한 좋은 환경, 돌봄과 자유놀이, 부모의 동행

비르기트 크로머  
(통역 이정희)

### 강의 발췌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발달 법칙에 따라 성장해 나가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 1세는 몸을 세우고 걷기, 만 2세는 말하기, 만 3세가 되면 생각하기 등 세 단계로 발달을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너는 무엇을 원하니?"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성인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어른의 몫은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미 피클러는 아이 곁에는 늘 좋은 친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입니다. 그 손이 늘 옆에 있으니 외롭지 않고 불거리도 많 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손은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차원에서 아주 좋은 벗이 됩니다. 손으로 자기 몸을 만지고 느낍니다. 손은 자신의 몸을 알아가게 해주니까 감정적으로도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감과 평화를 줍니다. 영아들은 손과 손가락을 펴보고 오므리는 것을 충분히 연습합니다. 그런 손으로 사물을 잡고 놓기를 반복합니다. 손을 오므리고 펴는 동작을 잘할 수 있으면 아이는 안과 밖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영아에게는 움직임의 발달에서 기본 토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아에게서 움직임의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신생아는 그냥 누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주 어린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니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일으켜 세우고,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해주면 아이

는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워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입안을 만지고 더듬을 때 영아들은 자신의 손가락과 입안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다양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이 자신의 몸을 자신이 느끼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일명 '공갈 젓꼭지'를 물려 놓으면 아이의 손은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영아가 입으로 손을 빨거나 손을 움직이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언어 조음기관의 발달이 부족해질 수 있고 언어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영아는 자기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알아가야 하는데, 그 경험이 없으면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손과 몸의 협응관계의 발달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영아들은 누워서 손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합니다. 손을 돌리고 흔들며 빠르게, 때때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각하며 촉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갑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는 좀 짧게 놀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오래 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마다 경험하고 알고 배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움직임과 촉각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무엇인가를 해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 차이를 아시나요? 식물이 태양을 보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이 식물에게 '내가 있는 쪽을

봐!'라고 한다고 식물이 태양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물 스스로가 태양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그래서 꽃이 핀다는 것은 꽃이 필 때가 되어서 피어나는 것이 지 역지로 꽃을 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아의 움직임 발달도 이와 같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 몸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옷이 좋습니다. 아기 옷은 꼭 맞는 것보다 자기 몸을 쉽게 느끼고 찾을 수 있도록 여유있는 것이 좋습니다. [...]

발도르프 학교에서 미디어를 다루는 시기는 만 12세 이후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컴퓨터의 원리, 즉 하나가 작동되면 다른 하나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컴퓨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미디어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면 미디어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유아기에도 현실의 세상을 충분히 만나고 난 다음에 미디어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만나지 못하는 동물들을 이미 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게 만납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동물들을 실제로 보고 난 뒤에 미디어를 통해 그 동물들을 보는 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절 탁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민달팽이를 보게 되면 한참 살펴봅니다. 그리고 실내에 마련된 계절 탁자에 밀랍으로 만든 작은 달팽이가 놓여 있으면 아이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산책하는 중에 달팽이를 만난 직접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요약하면, 계절 탁자는 바깥에 있는 자연을 실내로 약간 초대

하는 것입니다. 계절 탁자는 어른의 취향에 따라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린아이들의 놀이 공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놀잇감은 늘 정해진 곳에 정돈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나름의 질서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이가 놀 때 무엇에 관심을 보이면 잘 관찰해 두었다가 다음 날 그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교육적 활동은 교사가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이는 이렇게 제공된 것이어야 충분히 잘 놀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진정성을 간파합니다. 여러분이 영유아에게 촉각 발달을 위한 손유희를 할 때는 손동작이 대단히 신중하고 부드러워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따라합니다. ♡



## 영유아의 본질 이해하기, 본보기와 모방, 발도르프 현장교사의 역할

마리 루이제 콤파니  
(통역 여성훈)

### 강의 발췌

슈타이너는 탄생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21년을 7년 단위의 주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생후부터 만 7세까지 첫 번째 7년 주기에 아이는 '세상은 좋다. 나에게 좋고 편안한 곳이다'라고 인식합니다. 두 번째 주기인 만 7세부터 14세까지는 이같이부터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얻어야 하는 삶의 경험은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감각입니다. 만 14세부터 21세까지 세 번째 7년 주기에 청소년은 '세상은 참되다' 또는 '세상은 진실되다'라는 인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판단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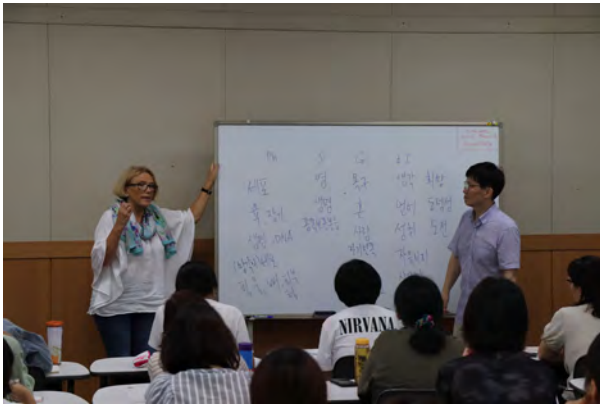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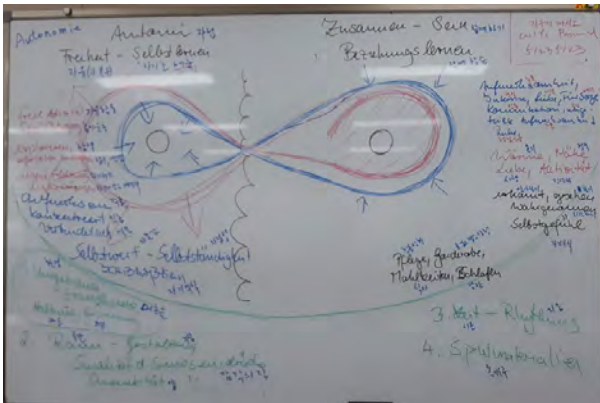
우리의 일상이 분절되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요소는 기억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기부터 아이는 자신을 '나'라고 지칭합니다. 이 시기부터 인간의 뇌는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작동하게 합니다. 그 전까지 아이의 기억은 본능적인 반응에 의한 것일 뿐, 기억력에 의존해서 뭔가를 표현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선물 중 하나가 만 3세 이전은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어서서 걷게 되기까지 아이는 수없이 넘어지는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이는 걷기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영아기 뇌의 '기억'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는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동일한 인물이 아이에게 와서 보고 안고 대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결국 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인지가 아니라 무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의

작동입니다.

만 3~6세는 판타지, 즉 상상력의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이 시기에 자기 주변의 사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물들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물들의 움직임, 이름, 특성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만 3~5세의 아이에게는 '지금'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제 일도 중요하지 않고 내일 벌어질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이 순간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자유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발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는 움직임, 놀이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상상력의 시기가 지나고 학령기에 가까워지면서 아이의 의식에는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 5~7세는 사고의 시기(뭔가를 '생각하여' 떠올리는 시기)로, 의견, 견해(그림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각의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은 놀이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등원하면 어떤 놀이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관념, 의견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놀이를 할 시간과 공간과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가지게 되는 욕구는 세상으로 나오면서 시작되는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아이는 엄마, 아빠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아기 때부터 엄마에



간 다음으로 또 하나의 환경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아이가 생활하는 리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지내게 되는가' 하는 리듬이 시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놀이감이 다음에 오는 중요한 환경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아이가 태어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환경이 됩니다.

요약하면 아이는 주변 인물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와 동시에 혼자 있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채워주는 요소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접촉하는 구체적인 돌봄은 아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작용합니다. 아이가 주변 인물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한 관심입니다. 즉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목하고 시선을 주고 돌봐주고 관심을 주는 것이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온기, 사랑, 관심, 알아보기, 바라보고 받아주기입니다.

게서 웃음의 접촉을 통해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기 때문에 주변 어른의 반응이 중요해 집니다. 아이가 관계를 가지려는 상대로부터 반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린 시기를 벗어나면서 아이에게 중요해 지는 또 한 가지 욕구는 '혼자 있기'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관계 맺기'와 '혼자 있기'는 아이에게 공간과 시간이 주어져야 충족됩니다.

영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환경은 사람입니다. 어른, 성인, 부모를 비롯한 가족입니다. 그 다음 직접적으로 가까운 환경은 공간(방, 집, 마을, 도시 등)입니다. 또 아이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놀이감이 있습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물리적인 커다란 공간도 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물, 색, 가구도 해당됩니다. 공

등원하면 꼭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 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아이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름을 불러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아이에게 개인적, 인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말을 나누며 맞습니다. 아이가 놀 때 어른들이 옆에서 말하고 놀이를 보여 주거나 나무 블록을 더 높이 쌓도록 지시하는 것보다 아이가 블록을 직접 쌓다가 쓰러지면 다시 쌓고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의 본성은 스스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

## 하나의 인간, 하나의 이야기

김루나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예술가 전문교육과정 연수생)

### 후기



첫날 수업을 듣고는 약간 맥이 빠졌다. 지난 3년간 읽은 책이 너무 많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만함으로 나 자신을 보지 못했다. 첫날 인간의 4구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머릿속으로 '저 내용은 책에서 본 내용인 걸?' 하고 생각했다.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어 매듭 인형을 일주일 내내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놀랐다. '다른 특강에서 2시간 만에 만든 걸 일주일 내내 만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오후 수업에서 아이를 돌보는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듯 아이를 돌보는 손길을 보고 무척 놀랐다. 나는 내 아이들을 저렇게 대해 준 적이 있었던가? 그날 밤 집에 와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왔다. 나는 인간의 4구성체에 대해서 단어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이가 뒤집고 기고 앉고 서고 걷는다는 순서는 당연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용어와 발달의 순서였지, 그 안의 본질인 인간으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 옆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줘야 하는 지도 몰랐다. 알았다면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실천은 하지 않고 머릿속에 용어만 가득 채우고 안다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후의 수업은 몇 번이나 가슴을 울렸다. 가슴을 울리면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 사지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 수업 내내 의지가 솟고 앞으로 질할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이 느껴졌다.


경청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오디오오페디 수업은 정말 특별했다. 처음에는 움직임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듣는 수업, 즉 외부의 소리를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호천사 수업

에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 들썹 짝을 지어 한 명은 눈을 감고 걸어가고, 다른 한 명은 수호천사가 되어 지켜주는 활동이었다. 나는 수호천사 역할을 했는데,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앞 사람이 점점 멀어지면 수호천사를 바꾸어도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앞에 가는 사람이 걱정되어 좀처럼 그를 떠나지를 못했다. 그때 내면에서 '내가 엄마로서 내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시간은 나에게 대해서 알게 된 특별한 순간이었다. 소리에는 외면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가 있다. 경청의 예술은 바깥의 소리를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들려오는 나의 소리도 잘 경청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오후 수공예 시간에는 매듭 인형을 만들었다. 위에도 적었지만, 내가 예전에 만들어 본 인형이었는데 일주일간 600분 동안 만든다고 하니 의아했다.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도 시간이 남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숨으로 인간의 뼈대를 만들고 다시 숨을 감아 살을 붙였다. 팔과 다리의 비율도 지켜서 만들어야 하는 인형이었다. 이렇게 만들면 600분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었다. 그리고 완성물은 너무 달랐다. 아이들의 놀이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겉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손에 잡은 순간 정말 인간의 아기를 안고 있는 기분이었다.

네 가지 수업으로 4일 차 5일 차가 무리익을 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다. 수업의 내용도 다르고 선생님도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기술적인 것을 배우러 온 곳에서 뜻밖에도 나 자신을 만나게 되었다. 4일

차부터는 집에 돌아가면 매일매일 평평 울었다. 내가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과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울었다. 남편이 도대체 뭘 배우길래 매일 울고 오라며 울었다 정도다. 7일째인 마지막 날 돌아보기를 하는 시간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돌아보기를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수업만큼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은 미처 몰랐다. 브라스 선생님이 돌아보기 시간이 끝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수업이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잘 했어'라는 생각이 드는 수업보다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수업이란단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자책하기보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아이들을 잘 만나면 된다고 하셨다. 그 말도 너무 감동적이었다.

발도르프 교육을 만든 슈타이너는 21살 이후의 교육은 자기 교육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아카데미 첫날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교만함이 올라왔지만, 마지막 날이 되니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겸손함과 반성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이 들 만큼 가슴이 울린다. 결단. 그럴듯한 인간이 아니라 수공예 시간에 빼대와 살을 붙여 비율까지 생각하며 만들었던 인형처럼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가지고 아이의 눈을 쳐다보며 온전히 곁에 있어주고 싶다. 앞으로의 나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제가 남았다. 내 안에서 그러한 힘이 솟아나기를, 달라진 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벌써 겨울학기가 기다려진다. 

## 3년간의 발도르프 영유아과정을 마치며

임영란  
(꿈꾸는 어린이집)

후기



발도르프와 나의 첫 만남은 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2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암아트홀에서 본 오이리트미 공연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엄마가 되었고, 첫 아이를 위해 책을 읽던 중 도서관에서 «당신은 당신이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이니다»라는 책을 대출하면서 다시 발도르프를 만났다. 두꺼워 한 번에 다 읽지 못해 여러 번 대출을 하면서 모두 읽었던 책이었다.


여러 형제 속에서 자란 나는 아이에게도 동생을 낳아 주려고 했으나 3년 동안 소식이 없자 공방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발도르프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형이 완성된 마지막 날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뱃속에 진짜 둘째가 생긴 것이다. 다섯 살이 된 첫째 아이를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다. 어린이집을 무조건 신뢰하며 아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다. 아이에게 유년기의 권리인 놀 시간을 주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생활에서는 내 목소리로 노래 불러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부모 모임에 참석하여 수공예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놀이감을 만들어 주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서로 다른 부모들을 만나 되게 하려고 부

모들이 모여 작은 통나무집을 짓게 하였고, 부모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가 된 활동은 아이들 관계와 놀이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학부모일 때는 자연친화적인 놀이감, 미디어 노출 피하기, 색깔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사가 되어 부족한 나를 느끼며 인지학센터에서 주관하는 발도르프 영유아 전문가 9기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다. 여름, 겨울 아카데미, 국내 실습, 해외 실습, 주말 연수, 수공예 활동, 예술 활동, 오이리트미 체험, 킨더 라이어 만들기 및 연주 활동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부모에서 교사로 입장이 바뀌자 목표 지향적이고 성장 욕구가 강한 나에게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 알고 싶은 의지와 열정이 일어났다. 발도르프 교육은 나의 성장을 돕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공부였다.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한 공부가 한 단계 발전하여 타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했다.

교수님들 덕분에 아이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에 접근할 수 있었다. 교사는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직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졸업식은 3년의 노력에 대해 나 자신에게 주는 상이고 선물이

다. 함께했던 교수님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축하 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졸업은 배운 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녹아낼 것인지 나에게 과제를 안겨 주는 새 출발의 자리였다. 번질되지 않는 꿈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다. 교육자, 부모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연마로 준비된 환경이 되어 동반할 것이다. 

#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

발도르프학교 담임교사 양성과정은 2012년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사범대학과 협력하여 1기가 출발하였고, 2016년부터는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과의 협력으로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과정의 8학기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디플롬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과 연계됩니다. 발도르프 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 발달(만 7-14세)에 맞는 교수방법론을 통해 현장 수업 능력과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기간** 2019. 8. 8(목) ~ 8. 14(수) 8:30-18:30 (64명 참석)

**장소** 여성가족재단 \*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 인간학

마가레타 레버 (Margareta Leber) / 통역 여상훈

인간학 11~12강

- 아동발달과 성장을 동반하는 교육적 의미
- 물질적, 감각적 환경과 신체의 상호작용

## 교수방법론 I

미카엘 물란 (Michael Mullan) / 통역 오윤선

미디어시대 현대 아동의 특징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치유교육적 접근

## 교수방법론 II

볼프 사가우 (Wulf Saggau) / 통역 김하진

교사를 위한 언어조형과 연극예술

- 발도르프교사를 위한 언어조형과 언어예술
- 수업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나(1~12학년)
- 학부모, 동료 교사, 타인과의 소통 방법

## 예술

정나란

오이리트미

## 아동 발달과 성장을 동반하는 교육적 의미

마가레타 레버  
(통역 여성훈)

### 강의 발췌

《일반인간학》의 첫 번째 강의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존 교육학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교육방론입니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과 영혼이 서로 침투해 들어감을 통찰하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정신적인 것과 영혼적인 것이 서로 잘 스며들게 하려면, 슈타이너는 먼저 아이들이 숨쉬고 잠자는 것을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정신과학을 근본으로 하는 새로운 심리학입니다. 이것의 근본은 두 가지 심리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반감과 호감 혹은 표상과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표상은 의지가 개입된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자연(우주)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점은 영혼의 세 가지 작용인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것(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강의는, 원하는 것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고 할 때의 의지는 무엇인가, 즉 의지의 단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 가지 영혼 활동의 어우러짐,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슈타이너는 언제나 영혼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난 후에 정신에 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신체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체에 관한 관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영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정신의 관점에서는 꿈꾸고 깨어 있고 잠들어 있

는 의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우리가 지각하는 감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감각이 인식의 다른 요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강의는 12감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홉 번째 강의에서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예비교사들이 정신과 영혼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로소 신체에 관한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에 관한 강의로는 첫 번째인 《일반인간학》의 열 번째 강의에서 슈타이너는 아동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교육이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열한 번째 강의는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헤칩니다. 열두 번째 강의는 건강의 반대인 병들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물리적인 자연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열세 번째 강의에서는 건강과 정신-영혼적인 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열네 번째는 인간의 형상 안에 있는 각 부분에 전체가 들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교육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교사는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 아이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진리에 대한 확신, 진실에 대한 용기, 상상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머리에 무언가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지의 움직임으로 머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정신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도르프 '교육 예술'은 생기 있는 움직임과 활동을 활용하여 머리의 정신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발도르프 학교의 모토는 가르침이 아니라 깨우는 것입니다.

《일반인간학》 강의에서 슈타이너는 만 7~14세의 아동 발달에 집중합니다. 발도르프 학교를 처음 만들 당시 1~8학년생을 위한 학교로 구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7년 주기 동안 발달의 비중은 폐와 심장에 있습니다. 폐와 심장의 특징은 시간의 연속성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와의 인간관계입니다. 폐와 심장은 몸통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 부분의 발달과 함께 감정과 영혼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바로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개별성이 살아나면서 관계 맺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슈타이너는 사춘기에 성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인간이 지상에서의 삶을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힘에 의해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기억에 의존한 학습을 많이 시키면 상상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간학》의



두 번째 강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는 인식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반감 능력이나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호감 능력이나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과는 기억이 연결되고, 반대편은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은 개념이고 그 근본은 신경입니다.

2강 첫 부분의 정리를 보면 기억과 상상력이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과 회상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한다고 하면 머리에 기억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회상이란 것을 떠올려보면 그것은 머리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일은 머리로 하지만, 회상을 하려면 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에 집중하는 교육은 에테르체에 만 자극을 주는데 비해 상상력에 집중하는 교육은 의지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상상력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 모두에 포함되지만 주로 아스트랄체가 자극 받는 과정에서 에테르체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슈타이너는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수업 시작과 끝날 때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상이 많은 아이들은 작문을 하게 되면 체계적이지 않고 되는 대로 섞어 쓰게 됩니다. 그 내용도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상상을 두서없이 쓰게 됩니다. 예술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상상이 너무 들어와 어수선히 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꿈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슈타이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 것으로 열기를 식혀 주기를 권했습니다. 음식의 경우에도 조금 짜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억이 강한 아이들은 학습에서 상상하는 아이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구축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아이들은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의 내용을 상으로 만들어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부분은 예술 활동입니다. [...] ♡



## 루돌프 슈타이너의 치유교육

미카엘 물란  
(통역 오윤선)

### 강의 발췌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교사들과 특수교육 현장을 위한 강연회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슈타이너는 교사가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먼저 일반 아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구성체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수교육학 강의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 대부분이 신진대사-사지체계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므로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핵은 절대로 병들 수 없음을 전제합니다. 인간 본질의 핵은 정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독일어의 'das Ich'(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자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영역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수교육학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자아라는 것이 어떻게 태어났을 때 정신의 힘과 정신존재의 힘들이 함께 자신의 몸으로 출현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몸을 받게 됩니다. 물질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어서 그 안에 핵심적인 존재를 담습니다. 즉 그릇은 그것을 담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그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갔던 중심적인

존재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특수교육의 대상인 아이를 이해할 때 정신을 담은 그릇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인지학에서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발달에 대한 인지학의 관점은 이전의 삶에서 어떤 요인이 지금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생에서 감각의 경험들이 부족했던 결과로 정신세계로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것이 지금의 삶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는 전생에서 감각의 경험을 잘 이뤄내지 못했기에 현재 삶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몸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 구성체를 기능 면에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머리의 신경감각체계, 다음으로 신진대사-사지체계가 있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으로 리듬체계가 있습니다. 머리의 신경감각체계는 중추신경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주된 활동은 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뻗어 나가서 몸 전체에서 활동합니다. 따라서 머리 영역의 활동 체계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진대사-사지체계의 활동은 분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리듬체계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종합과 분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수교육학은 신진대사-사지체계에서 주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탓에 의지적인 행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우리가 하복부와 사지의

작동에 필요한 의지 영역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인간의 정신 영역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슈타이너는 특수교육학 강의에서 사고체계의 장애를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리듬영역과 사지체계의 불규칙성, 어려움 등을 강조합니다. 이를 테면 자폐 성향을 지닌 아이들에게 아이가 자신의 의지대로 사고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인간의 물질체는 물, 불, 바람, 땅이라는 자연의 4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지닌 하나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에테르라는 요소인데, 이 요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따뜻한 온기, 빛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내장기관인 간에 나타나는 어려움은 간 주변을 흐르는 에테르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근본은 영혼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집중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있으면, 그런 태도의 현상만 보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것저것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과잉행동 ADHD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증상은 슈타이너의 부차수련에서 말하는, 사고를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특수교육학을 이해하면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현상의 원인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아이의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닌지, 아이의 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정상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흡은 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를 맑게 도와주는 신장과도 연결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안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내 몸이 자기의 것이고 내 집임을 느끼지 못하고 영혼적으로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행동장애'라고 판단합니다. 즉 아이의 신체기관과 연결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태도만 보고 바로 판단합니다.

빈 근교에 위치한 우리 공동체의 학급에 까치발로 걷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982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캠프힐을 만들었던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토마스는 의학 전문지식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 아이를 관찰하고 에테르체의 순환이 위로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치유교육의 현장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는 교실 문을 열고 돌아다녔습니다. 토마스는 아이에게 교실 문을 닫으라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교실을 2분 동안이나 돌아다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토마스는 이 아이가 자기 말을 이해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토마스의 처방은 식사 후에 아이의 발을 온수에 씻기고 아직 에테르체가 안정되지 않은 발뒤꿈치에 벨레다 연고를 발라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처방을 5년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 제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치료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원인은 모르고 판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슈타이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명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이든 비장애아동이든 아이들과 작업할 때 아이들의 재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활동 중에 내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내가 지향하며 나아가는 길에 열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슈타이너의 부차수련 6단계 중 첫 번째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명상에 관한 연습을 한 분은 내 의지로 나의 사고를 집중해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통해 사고를 집중해서 한 곳에 머무르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연습해서 우리의 사고를 조금 더 고차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집중해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 다른 생각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자인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과 신체의 결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도와줘야 합니다. 우선 아이의 주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는 그 아이의 영혼 상태에 알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배움의 시간들

권정민  
(고양자유학교 교사)

### 후기

쉴 틈 없이 휘몰아치는 일상을 보내다가 방학 때 만나는 인지학센터의 담임교사 양성과정은 내게 재충전의 시간이자 힐링의 시간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개인적으로 특히 좋았던 것은 함께 공부했던 여러 선생님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만났다는 것이다. 나는 낮가림도 많고 수다 떠는 재주도 없는지라 여러 번의 연수과정 동안 주로 같이 온 동료 교사들과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연수는 연극 활동과 오이리트미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몸으로 눈으로 마주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서 참 좋았다. 언제나처럼 아침 열기 합창을 시작으로 마가레타레베 선생님의 인간학과 마이클 몰란 선생님의 치유 교육, 볼프 사가우 선생님의 언어 호형과 연극 예술, 정나란 선생님의 오이리트미 과정이 있었다. 짧게나마 늘 수업 전 몸과 마음을 열어주셨던 정릉발도르프 음악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밝은 에너지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시는 마가레타레베 선생님의 열정적인 인간학 강의에서 인간의 몸과 영혼과 정신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흥미롭게 들었다. 특히 신생아 시기의 돌봄 부분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옳다고 믿었던 자연주의 육아의 방식을 더 깊이 있게 통찰하고 증명해주는 시간이었기에 반갑고 놀라웠다. 역시 배우면 배울수록 인지학의 세계에서 밝혀주는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은 엄청나게 깊고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감동적이었던 몰란 선생님의 치유 교육을 잊을 수 없다. 첫 강의에서 풀어주셨던 장애를 보는 관점은 치유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장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중심을

잡아주셨다. 몰란 선생님은 "한 사람이 예전 생애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시 갖고 다음 생애에 온다. 자기에게 알맞은 감각을 담은 몸체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이 세상의 누구라도 자기 안에 한 부분은 장애를 갖고 있으며, 한 면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이기에 장애아를 만나다 누군가를 가르치든 항상 스스로 자기를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교사 안에 있는 자아의 힘은 아이의 아스트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교사가 주는 안정감 안에서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늘 명상과 자기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기억에 남는다. 그럴 때 아이들은 '아, 이 선생님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구나!' 하고 느낀다고 한다. 선생님은 자기 훈련을 위해 생각을 집중하는 연습으로 의지를 키우고 내 감정에 균형을 잡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존재와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세계에 자신을 열어둘 것을 당부하셨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우리 집 책꽂이에 고요하게 잠자고 있는 《부차수련》 책을 다시 봐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시는 장애 아동들의 사례와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눈물바다에 빠트렸다. "정신세계로부터 아이들이 그대에게 내려왔다. 그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교실 안내 책상 옆에 붙어 있는 슈타이너의 격언이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혼자 되뇌어보는 주문이기도 하다. 치유란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장애를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지 깊이 성찰하고 온몸과 마음으로 젖어 들었던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점심시간 후 사가우 선생님의 연극 예술 수업 시간에 우리는 나른해진 몸과 마음을 재미있는 연극 놀이와 활동으로 다시 활기차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 박수치기와 발동작,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느낌들을 왁자지껄, 활기차게 펼쳐보았다. 마지막 날 사가우 선생님께 배웠던 내용을 창의적이고 생기발랄하게 발표하는 연수생들의 열정은 정말 놀랍고 재미있었다. 역시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만의 작품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실감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내가 느낀 총만함파 따듯한 영향분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눈물을 흘리며 몰란 선생님의 강의를 통역해주셨던 오윤선 선생님, 토씨 하나라도 정확하게 전달해주시려는 정성이 온 마음 그대로 느껴졌던 여상훈 선생님, 이번에는 비록 통역 시간은 없었지만 쉬는 시간마다 연수생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 애쓰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정희박사님의 모습들.

연수를 마치며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아카데미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나 자신이 참으로 좋은 학생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만든다. 열정 가득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강의해주시고 통역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나도 교실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배우고 더 훌륭하게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본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한 학기를 잘 지내고, 돌아오는 겨울에 나를 채우는 고마운 시간을 다시 마주하고 싶다. 

## 발도르프 담임교사 양성과정 후기

김채현  
(성남자유발도르프학교 교사)

### 후기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어린 날이 있었다. 철두고 싶어서 철학을 만지작거리려봐도 삶은 늘 혼란스러웠다. 과연 내게 마흔 살은 불혹(不惑)의 나이, 신 삶은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였던가. 불혹의 나이에도 나는 끝없이 더 다양한 유혹에 흔들렸다. 지천명의 나이를 맞고서야 겨우 하늘이 내게 주신 명(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다. 어찌 되었건 하늘의 소명이라면 소명대로 반백의 나이를 넘어서고서야 발도르프 교육 현장에 발을 디뎠다.

'즐거운 학교'에 대한 동경으로 시작한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 생활이었다. '사람을 생각하는 교육'이 세상 모든 것과의 연결고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순환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발도르프 학교 안팎의 현실이란 종종걸음 치는 교사에게 짐처럼 내려와 주지 못하는 시공간이었다. 어떤 돌을 골라내며 어느 모퉁이까지 가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그 돌밭을 얼마만큼이라도 지나고 있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오직 아이들의 성장에 몰입하며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 여름방학이 선물처럼 왔고, 학부모님들의 사랑 어린 격려 속에서 교사양성과정 연수를 받게 되었다.

연수의 시간은 상상 이상의 현실이 되어 내게로 들어왔다. 발가락 끝에서 정수리 끝까지가 울림으로 채워지며 매일 가슴 벅찼다. 교수님들의 진정성은 연수생 한 명 한 명의 사명


감과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이어지며 모두의 가슴 안에서 맥동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변함없이 담임교사를 하시면서 강단에서 제자를 키우는 일도 함께 하시는 마가레타 레버 교수님, 44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시고 오랫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신 마이클 물란 교수님,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일구어낸 언어 교육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볼프 사가우 교수님의 강의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사람에게로, 내게 오는 아이에게로 교육이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셨다.

나에게, 우리에게 울림의 날들이었다. 물란 교수님의 가르침처럼, 울림은 세상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려는 특성을 가졌다. 그 울림이 음악과 말 속에 깃들었다고 하신 의미를 강의를 들으면서 그대로 체험하였다. 기어코 연수 마지막 날에는 연수 기간 내내 사랑으로 녹여내신 가르침에 모두 눈물을 쏟고 말았다. 통역을 통해 전달받는 독일어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 언어의 뉘앙스를 통해 그 진심과 애정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었다. 내가 왜 울고 있을까 의아해할 때 강의실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흐느낌이 들려왔다. 사실, 강의실 안은 가히 소리를 삼키려 애쓰는 연수생들의 눈물바다였다. 불을 타고 내리던 눈물과 감동을 나의 얇은 글에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아쉽기 그지없다.

끓어 넘치려는 듯이 달구어지던 희열의

시간을 뒤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학기를 맞았다. 변함없이 아이들은 내게로 와서 나의 맘속에서 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 아이들과 나의 마법 같은 관계다. 나 같은 신출내기 발도르프 교사든 경력 많은 교사든 자신에게로 오는 아이에게 향하는 마음은 한 점 다르지 않으리다. 교수님 말씀대로 내게로 오는 아이들은 모두 내게로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변하지 않아서 고민하지 말고 교사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다짐도 해본다. 아이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교사의 그 모든 울림 속에서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해 갈 것이기에…….

달빛이 내려와 어둠을 살짝 들이키니 짙어진 풀잎 위에서 풀벌레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 가을이 드디어 깊게 숨 쉬는 소리다. 가을 숨소리에는 아직 여름 공기가 남아 있다. 가을은 여름 공기를 양분으로 더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갈 것이다. 여름의 울림은 사라지지 않고 세상 곳곳에 관여할 터다. 커다랗고 깊은 울림으로 내게 들어온 여름 연수의 추억 또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로 연결되어 우리 모두를 더 단단히 키워 주리라.

연수에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큰절 올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모두 또 뽀뽀를 미고 바라며… 

#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오이리트미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한 동작에  
술로서 그리스어로 ‘아름다운(eu-)+리듬(rythmie)’을  
의미하며 결국 ‘아름다운 동작’을 뜻합니다. 발도르프  
학교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집  
중력과 의지력을 기르며, 동선의 움직임을 공동으로  
실현하여 공간 감각이 길러질 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  
이 촉진됩니다.

발도르프교육운동이 질적, 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  
도록 한국에서 오이리트미를 전공할 수 있는 교육기  
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미  
움과 발도르프사범대학의 협력으로 사단법인 한국슈  
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17년 서울오이리트미움예술  
원을 개관했습니다.

총 5년간의 교육과정은 스위스 도르나흐 소재 괴  
테아눔 예술분과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소정의 과정  
을 마친 전공자는 오이리트미 전문교사 자격을 얻어  
유아교육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음과 동  
시에 교육오이리트미 석사과정 입학 자격, 치유오이  
리트미과정 입학 자격과 오이리트미 앙상블 입단 자  
격이 주어집니다.

## 2019 여름학기

기간 2019년 7월 30일(화) - 2019년 8월 21일(수) / 9:00-18:30

장소 서울오이리트미움예술원(2층, 6층)

참여 1기(3학년 재학생 15명), 2기(1학년 재학생 5명)

## 책임 교수진

### 음악오이리트미, 언어오이리트미

(총 책임교수)미하엘 레버, 하이오 데커

### 음악오이리트미

임동원

### 음악, 한국어오이리트미

한미경

### 교육오이리트미

신승혜

### 음악이론

이윤옥

### 학생지도, 예술작업

정나란

## 오이리트미 그리고 열 다섯 우주의 만남

문지윤  
(오이리트미 1기 재학생)

### 후기



오이리트미를 만난 지 어느새 7년째다. 발도르프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도 오이리트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때 오이리트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어쩌면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이끌었던 것일까?

2013년 8월 과천에서 하이오 데커 선생님의 지도 아래 20여 명의 선생님들과 연수를 시작했다. 방학마다 매일 4시간씩 3주간의 연수를 받는 동안 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다.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했을 시간들이 한 해 두 해 채워지고 어느새 아이들이 자라 예전과 달리 엄마의 손이 많이 가지 않게 되었을 무렵, 인지학센터에 오이리트미 교사 양성과정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다시 고민이 시작되었다.

40대를 넘긴 늦은 나이에 5년이라는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오이리트미를 공부할 것인가? 이번 생에 오이리트미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그냥 꿈같은 일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교사양성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두 갈래 길을 오가다가 결국 더 이상 앞뒤 가리지 않고 2학년으로 편입을 했다. 편입을 한 후 가장 좋았던 것은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오이리트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는 오이리트미가 좋고, 우리말로 오이리트미를 하는 것도 좋고, 슈투트가르트 학생들도 모두가 듣지는 못한다는 대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수업도 오이리트미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는 귀한 순간들이었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에서는 슈투트가르트 오이리트메움의 교수이자 엘제 클링크 오이리트미 공연단의 음악감독으로 계시는 임동원 선생님으로부터 3주간 음악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한 명 한 명을 향한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은 음악 오이리트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하이오 데커 선생님은 늘 그러시듯 열정 가득한 수업을 이끌어주시며 여름이라 지친 우리들을 많이 걱정해주셨다. 신승혜 선생님은 한국 발도르프 학교와 유치

원 현장에 계신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교육 오이리트미 시간을 만들어주셨다. 3주간의 여름 아카데미가 너무나 소중하고 짧게만 느껴졌다.

서울 오이리트메움 1기생에게 졸업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년 반. '2년 반이 지나면 내가 정말 오이리트미스트로서 당당히 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보내야 한다는 자책으로 돌아온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오이리트미를 사랑하는 열다섯 명의 늦깎이 동기생들이 있기에 한국에서 오이리트미스트를 꿈꾸는 호사를 누릴 수 있진 않나 싶다.

오이리트미라는 태양을 찾아 열다섯의 우주가 이곳에서 만났다.

이 우주는 저마다의 궤도가 있어 때때로 부딪힘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 혼돈을 잘 헤쳐나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할 수 있는 날까지, 함께여서 행복한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감사히 걸어가고 싶다. 

## 나를 깨고 너에게로

김구영  
(오이리트미 2기 재학생)

### 후기



글을 쓰기 위해, 부엌의 널따란 탁자 앞에 앉아 있다.

탁자 한가운데에 나무 접시가 하나 놓여 있는데,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씻어 둔 포도와 복숭아가 보인다. 둘이 서로 자기를 먼저 집으라고 경쟁이라도 하듯 농익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런데 저 포도는 내가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포도이고, 복숭아는 저 모양대로의 복숭아일까?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오이리트미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이것과 비슷하다. 오이리트미를 시작하며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역시 이와 비슷하므로, 1학년 한 학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가 앞에 놓여 있는 포도를 '포도'라고 인지하는 것은 눈을 통해 포도에 대한 시각 정보가, 코를 통해서도 포도 향기에 대한 후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손을 뻗어 탱글탱글한 포도알을 하나 떼어서 입안에 넣는다면, 촉각과 미각을 통한 정보가 추가되어 눈앞의 대상은 '포도'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대상을 파악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여러 감각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다면, 그 인식은 상

대적으로 불완전하고 얇은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오이리트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오이리트미는 기본적으로 동작과 행위가 동반되는 예술이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고, 몸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이리트미를 해보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품고 있는지 깨닫고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선생님들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공간에 대해 열려 있어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가 있어서 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가 있기에 아래가 있다. 오른쪽과 왼쪽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지금 탁자의 왼쪽에 앉아 있지만, 전등의 오른쪽에 앉아 있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두 눈이 모두 머리의 한쪽(얼굴)에 모여 있다 보니 개나 잠자리처럼 시야각이 넓지 않다. 우리의 시선은 늘 얼굴이 향하는 앞쪽을 바라보고 그 방향만 생각하지만, 앞이 있기에 존재하는 '뒤'라는 공간, 즉 우리의 뒤 통수와 등이 바라보고 있는 공간은 잊어버린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반쪽만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공간의 앞과 뒤,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대해서 의식하면 할수록 그만큼 의식이 활짝 열리고 넓어진다 고 배웠다.

오이리트미의 가장 기본 연습인 '걷기'도

그렇다. 평소 우리는 앞만 바라보면서 걷는다. 걷는다는 행위를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걸을 때도 많다. 하지만 오이리트미를 할 때 당신이 걷는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걷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디디고 있는 땅(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의 모든 존재가 움직여 가는 행위, 그것이 바로 '걷는 것'이다. 과거를 통과해 온 내 온 존재를 움직여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라니……그러니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신의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편견과 무지를 깨치며 의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 오이리트미 안에 있다. 오이리트미는 춤도 아니고 신성한 제식도 아니며, 내 안에 갇혀 있는 나를 깨고 너에게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의 현현인 것 같다.

거울 없는 오이리트미 연습실에서 동료들과 이런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따로 있던 우리는 하나가 되어 공간 안에 녹아든다. 각자의 보폭과 속도로, 그러나 앞과 뒤와 옆에서 다가오고 스쳐 지나가는 서로의 움직임을 모두 느낀다. 그 모든 걸음과 움직임은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 순간에는 너도 나도 없고 그저 우리, 나라는 경계를 넘어선 우리가 있을 뿐이다. 뜨거웠던 이 여름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함께 빛나는 우주가 되었다. 



# 집중코스 특강

- 42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취득과정
- 46 인지학과 예술
- 48 특강 아침시 감상



#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자격취득과정

발도르프교육을 펼치는 여러 현장에서 교육의 문제 영역을 실제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인지학적 인간학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상담실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발도르프교육 전문과정을 졸업한 현장 전문가를 위한 심화코스로, 슈타이너의 교육론을 기반으로 현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격과정입니다.

**기간** 2019. 8. 2(금) ~ 8. 4(일) / 8:50-17:50 (33명 참석)

**장소**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 부모교육

마리 루이제 콤파니 Marie-Luise Compani / 통역 여상훈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발도르프 교육의 전통과 미래·신체적 특징과 교육적 자극들

## 부모상담

비르기트 크로머 (Birgit Krohmer) / 통역 오윤선

부모와의 상담기술

## 예술

손석심

내적 힘을 강화시키는 예술치유

## 부모교육상담사 자격과정 후기

이명희  
(경희의료원어린이집)

### 후기



부모 교육, 부모 상담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며 가장 어렵게 느끼는 주제이다. 하지만 어렵다 하여 외면하고 놓아버린다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할 주제란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많은 부분들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부모 교육, 상담과 관련한 영양가 있는 도움을 얻고 싶어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과정에 등록했으리라. 하지만 '독일의, 발도르프 기관의 부모들이라면 왠지 좀 특별하지 않을까? 부모들이 다 알아서 잘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기대치를 조금은 낮추고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그런데, 콤파니 선생님의 말, "부모 교육을 꼭 들었으면 하는 부모들은 교육장에 안 온다."라는 이야기에 속된 말로 땀 터진 게 사실이다. '우리랑 다르지 않네?'라는 생각에 급격하게 친근함을 느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내를 갖고 아이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 상담과 부모 교육의 시작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콤파니 선생님이었다. 우리가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발달에 대해 이해하여 준비된 환경을 마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소통이 어려운


부모도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온 교수님들도 매우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부모들을 바라보며,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며 아이들 보육, 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기에 크로머 선생님의 인간학 강의는 교사가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부모들의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강좌였다. 크로머 선생님의 생생한 영유아 모사 표정과 움직임 보는 것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인간학 강의는 영유아기에 집중하지만, 생애 전반의 발달, '사람'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에 듣고 나면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가까이하기에 너무 멀게 느껴지는 영역이 예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기와 관련된 것들이다. 어릴 적부터 나에게 미술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테크닉과 관련된 싸움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의 영향, 평가의 영향을 잘못 받아 그렇다고 핑계 대고 싶다. 그런데 발도르프 교육에는 항상 예술이 중요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이번 부모교육상담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림은 또 많은 것에 대해 알려준다. 어떤 도구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선이나 면이나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들어야 한다. 나에게 와 닿은 손석심 선생님의 교육 내용 중 세 문장만 추린 것이다. 몇십 년 전 받았던 부모들의 미술 교육과 현재 부모들이 기대하는 미술 교육이 같다면 그것은 괜찮은 걸까?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의 그림에 대해서 잘 보고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 예술 강의였다.

교육생들이 마지막으로 빙 둘러앉아 소감을 나눌 때, 교육생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무언가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만큼 마음을 움직인 교육이었다는 게 아니었을까. 단 몇 번의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가 되지 않듯이 성인 또한 단 며칠의 교육으로 다른 어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어른은 사고와 행동 패턴이 굳어져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스며들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부모교육상담사 과정을 또 기다리며 배웠던 내용을 다시 꺼내어 보고 적용하고 반성하며 부모들과 함께 살아간다. 발도르프 현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꺼내어 보고 또 꺼내어 보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기에..... 

## 아우디오패디 회어라운드 - 나의 내면의 작은 공간으로 소풍을 다녀오다.

정선훈  
(꼭두발도르프교육예술원 원장)

### 후기



"상당사는 온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내담자의 울림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계시글에 이끌려, 한국슈타이너인지학 센터에서 진행되는 경청의 예술 아우디오패디를 3일 동안 체험했다. 어떤 이야기와 몸짓들을 만날지 기대 반, 낯설 반으로 강의 장소인 서울 오이리트메움에 들어섰다. 짙은 먹빛의 생활 한복을 입고 안경 너머로 지극히 깊은 눈빛을 지닌 라인힐트 브라스(R. Brass)교수님이 계셨다.

"현대 생활에서는 주변의 소리를 듣거나 보는 것을 많이 놓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 듣는 예술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교수님이 운을 떼셨다.

브라스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여러 악기의 소리와 울림은 토성, 태양, 달, 어느 지점엔가 흩뿌려져 있다가 지구에서 새로운 몸을 만나 나에게 다가오는 듯 하였다. "트라이앵글 소리는 아이를 밖으로, 위로 더욱 깨어나게 합니다. 공의 울림은 아이에게 밑으로 내려앉는 느낌을 줍니다. 공은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을 연주하면 나의 중심을 만들어 주며,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철로 만들어진 큰 공은 나보다 훨씬 깊은 울림이 나며, 철은 직접적으로 피에 영향을 줍니다. 돌은 사람의 심성에 직접적으로 다다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크리스탈 관은 시신경에 다다르며,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내는 듯한 자연에서 나오는 울림입니다. 쇠의 울림은 우리를 육화시킵니다. 구리의 울림은 밖으로 나가게 하여 하나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짐벨은 고요한 힘을 만듭니다. 탐탐은 죽음으로 가는 길목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4구성체 중 나에 해당하는 먼 차원과 연결됩니다. 다양한 악기의 소리와 울림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에도 깊숙이 들어갑니다." 브라스 교수님의 이야기였다.


"감각적인 인상은 물질체를 통과하면서 잔물결을 일으키고, 되풀이되고, 울려 퍼진다."는 슈타이너의 글처럼, 악기 소리와 울림은 나의 육체, 정신, 영혼 속으로 들어 왔다.

브라스 교수님이 다양한 악기로 연주해 주시는 3번의 회어라운드 중 마지막 날 나는 어려서 자주 앓았던 치통(왼쪽)이 길고 강한 진동과 함께 올라오는 과정을 만났다.

"각각의 울림과 목소리에도 움직임이 있

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우리 몸은 움직이게 됩니다. 아프면, 그곳이 막혀 있으니 풀라는 신호입니다. 이 통증 때문에 회어라운드에 오는 것을 무서워하면서도 계속하면 뚫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것이 잘 들고 뚫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어라운드입니다. 좋은 악기의 울림은 우리의 몸을 치유합니다." 치통에 대한 나의 질문에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회어라운드는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사이에 중간 다리(작은 잠)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 잠자면서 자아체와 아스트랄체가 커져서, 육체와 에테르체가 점점 강해진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균형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4구성체의 균형을 (이전의 삶에서 가져왔던, 발달 과정에서 만들어졌던)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에 위안을 만난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면 브라스 교수님의 회어라운드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 아우디오패디 연수를 마치고

허주옥  
(화랑어린이집 원장)

### 후기



2016년 여름 지인의 권유로 인지학센터 "회어라움"에 참석하게 되었다. 인지학이 무엇 인지, 회어라움이 무엇인지 당시는 몰랐지만 새로운 경험이며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권유로 참석했다. 인지학센터에 오게 된 것은 2016년 봄에 들었던 라이어 연주 때문이었다. 부드럽고 편안한 소리로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연주에 눈물이 흐른 경험은 오래도록 라이어 연주를 다시 듣고 싶게 하였다.

회어라움은 브라스 교수님과 이윤옥 선생님이 연주해주셨다. 시작을 알리는 소리에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천둥 치는 듯한 강한 느낌과 어딘지 모를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끌림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나른 안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혼자 듣기에 그 울림은 너무나 무서웠다. 나는 경직되고 긴장되었는데 옆에 누워 듣는 다른 분이 코를 골고 있는 것이다. 눈을 떠서 옆 사람을 보고 싶었지만, 그 울림 뒤에 들리는 다른 소리는 처음과 다르게 맑고 경쾌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회어라움의 처음 경험은 신비롭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지만 나도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

서 회어라움 중간중간 자다 깨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날의 경험은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

이번 여름 참여한 아우디오패디 연수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강의는 3일 내내 너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소그룹, 대그룹으로 진행되는 매 활동에서 새롭게 만나는 낯선 구성원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각의 노력으로 팀 구성원 전체가 소통하는 느낌과 행동에 내 마음이 정착되는 듯했다. 말 없이 서로를 보고 느끼며 시작과 끝을 같이 한 경험은 내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었다. 활동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어려웠다. 마치 인생 같다는 내 고백에 브라스 교수님이 보내주신 따뜻한 눈빛과 끄덕임은 내 마음을 몽클하게 했다.

세상을 살면서 낯선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적응하고 헤어지는 반복적인 과정이 우리가 했던 활동 같았다. 과연 이런 활동처럼 좋은 느낌과 의미를 남길 수 있을지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갔다. 오래전에 나를 가르친 선생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알아주던 기억이 났다. 어린 내 마음을 읽어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선생

님을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편으로는 과연 나는 현장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듣는 교사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귀는 소리를 듣는 문이다. 듣는 것은 몸을 통해 이뤄지며 등은 제3의 눈이라는 교수님 이야기가 기억난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깨어있는 용기가 내게 오래도록 있기를 소망한다. ♡

# 인지학과 예술

20세기 초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시한 인지학적 관점으로 교육, 인간, 사회 등 현대의 양상을 이해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집중 코스입니다.

기간 2019. 8. 10(토) ~ 8. 12(월) / 8:30-17:30 (27명 참석)

장소 여성플라자 2층 NGO실

## 인지학

마가레타 레버 (Margareta Leber) / 통역 이정희

죽음 그리고 그 이후

## 인간학

미카엘 물란 (Michael Mullan) / 통역 이정희

인지학적 치유교육에서 바라본 인간상

## 연극예술

헤다 사가우 (Hedda Sagg머) / 통역 김하진

표현을 통한 내 인격의 재발견



## <인지학과 예술>을 듣고

윤정원  
(꽃가람발도르프어린이집)

### 후기



<인지학과 예술>은 이제껏 두 번의 과정을 들었고 세 번째로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과정은 조소, 음악과 함께 인지학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한두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강의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연극이라는 다소 생소한 예술과 함께 한다고 하여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 비해 많은 수강생이 있어서 분위기도 활기차고 반가운 분들도 만나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물란 선생님의 "인지학적 치유 교육에서 바라본 인간상"은 교사, 부모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첫 시간 첫 번째 말씀으로 "인간의 본질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다. 정신세계에서 육화된 존재로서 인간은 누구나 신성한 존재이고,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하시며 그것이 치유 교육의 바탕이고 이것을 항상 우리 시선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이이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인간으로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진심으로 겸손했는지 성찰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철학

사 속에서 인지학과 관련성을 강의 중에 때때로 설명해주셨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또 다른 인지학 강의는 마가레타 레버 선생님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 죽음이라는 전환점 이후 재탄생까지 영혼이 거치는 단계들의 인지학적 고찰"이 주제였습니다. 인간 영혼이 겪게 되는 사후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성과 관련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시점에서 지상의 삶을 그대로 되짚어본다고 하는 것에 놀랐고, 그 또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놀랍고 신비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후의 영혼 세계에 대해 어렵기이어나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내가 만나는 타인의 영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현재의 나의 삶과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의 방향에 대해 깊이 명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긴장되었던 헤다 사가우 선생님의 연극 예술 "표현을 통한 내 인격의 재발견"은 어색함을 깨뜨리느라 어려웠지만, 뒤돌아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내면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어떤 규범,

도덕 등의 가면 속에 나를 공공 가두고 살았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듬 활동을 통해 어린이처럼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쪽 어깨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불편하였는데 그 불편함도 계속 느끼게 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어려운 내 자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따라가기가 편한 내 자신,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억눌러 표현조차 어려운 내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내면의 감정과 드러내는 외면 사이의 부조화를 깨뜨려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극 예술이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만으로 하는 공부보다 이런 예술 활동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저절로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 아침시 감상 후기

금채  
(인천발도르프학교 교사)

### 후기



2019년 "여름 국제 아카데미 아침시를 위한 특강"에 참여해서, 아침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시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올란츠회에 발도르프 학교에서 시작되어, 백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발도르프 학교에서 낭독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학생들과 함께 등글게 모여 서서 아침시를 낭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시는,  
하루의 시작과 수업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아이를 깨우는 표현과 더불어 배움에 대한 이유를 말해 줍니다.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며,  
모방을 통해 배우는 기쁨 그리고 더불어 배우고자 하는 힘의  
작용을 느끼게 해 줍니다.  
고학년 아침시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도록 연결합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를 예민하게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세상을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세상 밖에 있는 지혜가 내 안에서 느껴지고  
밖에서 일어나는 체험이 내면의 의식 상태와 연결되게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낭송하는 아침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하루의 시작을 알리

는 잔잔한 울림이며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침시는 낭송하는 이에게 자신을 관조하게 하며 내면 깊은 곳의 자아를 일깨우는 길잡이와도 같습니다.

### 아침시

#### 저학년 (1~4학년)

태양의 사랑스런 빛은  
나를 위해 하루를 밝히고  
영혼에 스민 정신의 힘은  
사지에 기운을 줍니다.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신이시여, 나는 찬미합니다.  
당신이 영혼 안에  
자비로이 심어주신 사랑의 힘을.  
그러서 나는 부지런히 일하고  
애써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빛과 힘이 나오니  
당신에게로 사랑과 고마움을 보냅니다.

1919년 9월

### 아침시

#### 고학년 (5학년부터)

나는 세상을 봅니다.  
그 속에 태양이 빛나고,  
별들이 반짝입니다.  
돌들이 자리 잡고,  
식물들은 살아서 자라나며,  
동물들은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은 생기 있고,  
정신에게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나는 영혼을 봅니다.  
나의 내면에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신의 정신은  
태양과 영혼의 빛 속에 짜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 세상 속에,  
안으로는 영혼 깊은 곳에.

오, 신의 정신이여, 당신에게  
나는 간절히 바라옵니다.  
배우고 일하기 위해  
힘과 은총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를.

1919년 9월



**루돌프**  
**슈타이너 어록**



## 아이와 함께 하는 기도

(만 3세 이상)

### 아침 기도

햇님을 보면  
 신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손을 움직이면  
 내 안에 신의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내 안에서 신의 의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신의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영혼은 그렇게  
 동물과 식물과 광물 안에 살아 있습니다.  
 신의 정신을 생각하는 내게는,  
 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내게는,  
 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내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1908/09년

### 저녁 기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는 신의 모습입니다.  
 가슴에서 손끝까지  
 나는 신의 숨결을 느낍니다.  
 입으로 말할 때  
 나는 신의 의지를 따릅니다.  
 엄마 아빠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동물과 꽃에서,  
 나무와 돌에서,  
 그 어디서나 내가 신을 볼 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을 향한 사랑만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낍니다.

1908/09년

## 외국어 수업을 여는 시

언어에 숨은 뜻을 아는 사람에게  
세계는 자신을  
상으로 드러냅니다.

말의 영혼이 내는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세계는 자신의  
본질을 열어 보입니다.

말에 담긴 정신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세계는 지혜의 힘을  
선사합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은 스스로  
자신의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슴과 감각이  
말 한 마디에 담긴 정신과 영혼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디를 향한  
사랑을 통해 내 자신을  
비로소 온전히 느낍니다.

자유발도르프학교의 그리스어와 라틴어 수업을 위한 시, 1922년 11월



## 명상시

내가 우주에서 생겨난 존재임을  
 더 많이 의식할수록,  
 온 우주로부터 받은 내 안의 힘들을  
 내가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을  
 더 많이 느낄수록,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죽음과 재육화 사이의 신비적 이해"에서 발췌. GA 140

내 가슴의 따스한 생명이  
 당신 영혼으로 흘러들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냉기를 녹이고  
 당신의 열기를 식혀주기를.  
 정신의 세상에서  
 나의 사고는 당신 안에,  
 당신의 사고는 내 안에 머물기를.

1824년

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을 감싸 안아  
 당신의 열기를 식히고  
 당신의 냉기를 덥히는  
 사랑의 봉헌이 스며들기를!  
 이 사랑의 힘으로,  
 빛을 선사하니  
 높은 세상으로 나아가소서!

1917년

"죽은 이를 위하여"에서 발췌. GA 261

# 응용 인지학의 현장 소식

- 54 부산발도르프학교
- 56 영천금호어린이집
- 58 광주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 59 발도르프어린이집 졸업생 이야기



# 부산 발도르프학교 국제 특강

## "발도르프 교육의 현재와 미래"

마가레타 레버  
(통역 신영주)

### 강의 발췌

오늘은 "발도르프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특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구성원이 될 사회는 '단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자신과 자연을 어떻게 연결시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즉,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자연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가지 예로, 생산과 소비의 여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땅에 스며들어 광물들과 섞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물계에 미치는 영향은 광물의 영향을 받는 식물계와 동물계와 인간의 삶에 직접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환경에 대한 책임에 소홀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폐쇄적 성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성향의 결과는 환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 탄생하는 많은 아동들이 전예 비해 이른 시기에 그 심리나 신체에서 자폐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생각하면 그

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슬프고 우울해지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의 '학교'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졌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여전히 기존 정치와 사회 이념을 배경으로 교육하고 있거나 기존의 경제구조를 기준으로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교육 방식과 목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의 경우는 어떨까요? 발도르프 교육을 창시한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는 학교란 학생이 '자신의 사람됨을 또렷이 알고 사람이 되어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배경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슈타이너가 생각한 '인간상'이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슈타이너는 사람이 세 가지 본질로 구성되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질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몸, 느낌이 활동하는 영혼, 그리고 사

고를 담당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인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정신세계에서 내려온 존재가 부모로부터 얻은 신체에 합일되어 온전한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슈타이너는 말했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마주 보고 있는 삼각형이 서로의 꼭짓점을 맞대고 서로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그 순간이 바로 '탄생'의 순간이며, 그렇게 균형 잡힌 하나의 육각별이 되기까지는 교육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지성'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에 몰두해 균형을 잃어버렸는데, 발도르프 교육은 그 경향의 반대편에서 균형을 맞추는 교육을 실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가교의 건설'을 이루어 학생 스스로 '본연적 존재의 완성'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육이


란 학생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학생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현대의 특성을 바르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아동이 각각 특별한 '개별체'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슈타이너의 "일반 인간학"은 교사가 '헌신'과 '사랑'으로 학생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야만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으며 교사 또한 바로 설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학생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갖추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각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발도르프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오늘의 사회에 원

인이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현 사회의 불균형을 인지하여 그 맞은편에 무게를 두어 '균형 잡힌 건강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그러기에 이 교육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더욱 강하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현대인이 수많은 신문물을 개발하는 데 매진해 왔음을 잘 압니다. 그 결과 세상은 기계화되었습니다. 기계화의 한 가지 예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속임수, 거짓, 유희 등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디어의 이면에 있는 '의도'를 잘 알아차리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오늘날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균형이라는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TV나 휴대폰, 만화책, 그림책 등을 통해 수많은 그림을 끊임없이 접하면서도 그림(상)에 대한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면에서 스스로 '상'을 창조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삶과 성장에 필요한 '상'이란 자기 내면에서 그려내는 상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저학년부터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상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이렇듯 발도르프 교육은 탄생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낡은 교육이 아닙니다. 미래를 지향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품고 있는 교육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 살아갈 세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경북 영천 금호어린이집 현장 방문기

김은혜  
(구립 올림픽파크 꿈별어린이집)

오랜만에 새벽 전철을 타고 출발지로 향했다. 설렘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과연 어떤 곳일까? 들기에 300평 규모의 굉장히 큰 시설임에도 재원 중인 아이들이 적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다. 금호어린이집에 발을 들이면서 독일 김제 (Chiemsee)의 영아시설에서 받았던 따뜻한 인상이 겹쳐졌다. 예전 새마을센터를 개조한 시설로, 낮은 천장과 문 등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인 나에게도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수가 많지 않고 주로 자연물로 구성된 놀잇감을 비롯한 물리적인 환경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느티나무가 있는 넓은 정원 역시 아이들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생명력을 자극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해 보였다.

어린이집 느티나무와 함께 세월을 같이한 금호 원장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많은 울림을 주었다. 첫째,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을 소개할 때 원장님의 그 따뜻한 눈빛.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을 기관장으로 독립시켜 주시고 영유아 전문가 과정에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시는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전해졌다. 둘째, 부모 협력을 고민하면서 시작된 손편지. 손글씨와 그림에 재능이 없는 나

는 큰 좌절을 느꼈지만, 손편지를 쓰면서 부모님에게 전달 내용을 고치고 정리할 수 있어 좋다고 수줍게 웃는 원장님 모습에서 왜 그런 방법을 고집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부모 협력, 나에겐 아킬레스건과 같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현장에서 매일, 매년 만나는 부모님은 새로운 동력이 되기보다는 어린이집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늘상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부모님만큼 아이들에 대해 많이 아는 분은 없으며, 따라서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고 할 때 가장 큰 협력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원장님 말씀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큰 수확을 얻었고, 부모님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든든한 뒷배경이 부모님이라고 하실 때는 세 교육 주체의 협력이 정말로 실현되는 곳이라고 느껴지며 너무나 부러웠다. 나도 과연 저런 넉넉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눈빛으로 현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다. 셋째, 혼합 연령의 힘. 형제자매 없이 혼자 크는 아이에게 위아래 친구들과 함께 자라는 귀한 경험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부모 입장에서 너무 고마울 것 같다. 인성이 자리 잡는 중요한 시기에서






로를 배려하고 무한한 사랑 속에 있는 아이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이 될 것 같다. 넷째,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세심함. 금호 원장님보다 더 오랜 시간 어린이집을 지켜온 조리사 선생님을 인사시키시는 태도에서 고마움과 협력의 정이 전해졌다. 잘 놀고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일상인데, 잘 먹기 위해 애쓰는 숨은 손길들이 있어 금호의 미래가 밝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무릎 동화. 역시 이야기의 힘은 큰 것 같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들으며 동심으로 돌아가 이야

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고요함 속에서 잔잔히 전해지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상력을 줄까? 상상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의 힘은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부모 협력 사례를 듣고, 학부모님이자 목공 선생님이신 분의 지도로 오침법을 활용한 이야기책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오침법과 매듭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졌다. 크래프트지와 한지, 전통 매듭으로 엮은 책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필사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작업은 부모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면서 귀한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도 우리 아이를 위해 실천해 보리라 결심했다.

금호어린이집에서 받은 귀한 인상과 울림을 간직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자주 모임을 하신다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금호 아이들이 2주에 한 번 가는 긴 산책길(대구대학교 숲길)을 걸었다. 원장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걷는 산책이 새로웠다. 숲 안에 있는 놀이체험 공간은 아이들의 고유한 움직임 방해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서 원장님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사물에서 아이들의 입장과 발달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신다는 진지함이 느껴졌다.

현장체험 시간보다 오가는 시간이 길어 몸은 고단했지만, 아이들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에서 많은 울림을 받고 돌아왔다. 마지막까지 방문자들을 배려하여 짜주신 도시락은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다. 음식을 먹으며 가슴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 고단함이 가시는 것 같았다. 초대해 주신 금호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글을 통해 전하고 싶다. 

# 광주 잇다자유발도르프 학교 소개

한경아  
(광주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교사)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1,900곳에 발도르프 학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2015년 광주·전남 지역에도 작은 아파트에서 3명의 학생으로 잇다자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잇다자유학교는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가 되어 교사 12명, 학생 39명의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잇다학교는 올해 8월,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의 터전이 생긴다는 것은 안정적인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얻고 지속적인 배움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지역에 생기는 첫 발도르프 학교의 터전은 발도르프 교육이 이상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배움의 중심이자 지역사회를 위한 희망의 동력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배움을 이어나가고 발도르프 교육의 진면목이 더 많이 전파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교사회와 함께 재정 위, 건축위, 홍보위를 꾸리고 각각 역할을 나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는 "학교 여는 날" 행사로 김훈태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 아이의 발달에 맞는 코칭"과 발도르프 수업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새로운 교육을 갈망하는 학부모, 공교육 교사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람과 햇빛, 계곡의 물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 가득한 성암 국제청소년수련원에 처음으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뉜 수업 체험은 발도르프 교육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개별성을 존중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병풍산 안쪽 성암 국제청소년수련원에 자리 잡은 우리 학교로 가는 길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사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끼며 자연과 하나되는 체험을 합니다. 모든 학년이 한 달에 한 번 병풍산으로 등산을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경이로운 체험은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자신의 의지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는 교사협동조합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교사들의 교육철학과 의지가 중심이 되어 세워졌고,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학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발도르프 학교가 담배공장 노동자들의 아이들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음을 새기며, 경제적 형편 때문에 교육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슈타이너의 뜻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곳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교사 중심과 자율학비제는 잇다자유학교의 중요한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는 10월 12일 입학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신·편입 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21일에는 부모 특강도 진행합니다. 또한 저희 구성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기다리는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20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갈 새로운 터전에 함께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칩니다. 

# 발도르프 어린이집 졸업생 이야기

우현미  
(강서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 학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아들, 중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큰아이는 네 살부터 일곱 살까지 강서 햇빛발도르프어린이집(이하 햇빛어린이집)에서 자랐습니다. 수나 문자 교육에 대해서는 '때 되면 하겠지'라고 생각했지요. 햇빛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별로 초조하지 않았습니니다.

막상 첫째를 학교에 보내 보니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책을 읽고 쓰는데 막힘이 없고 더하기 빼기를 술술 하니,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12년 전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담임 선생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말씀 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아직 한글을 정확히 떼지 못해서요.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따로 해 주시나요?”

“아, 어머니, 한글은 입학 전에 다 떼고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글 교육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아, 네... .”

‘아니,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럼 학교에선 뭘 가르친다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받침 없는 글자 정도만 겨우 읽고 쓸 수 있었던 저희 아이는 당연히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 맞는 글자보다 틀리는 글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집에 와서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 시험 봤는데 친구 ○○이랑 □□는 100점이에요.”

“그래, 너는 몇 점인데?”

“응. 나는 다섯 개 맞았어요.”

“아, 그럼 50점이네. 넌 친구들이 100점이라 좋아?”

“네. 전 친구들이 100점 맞아서 너무 좋아요.”

“엄마는 네가 100점 맞으면 너무 좋겠다.”

아이는 자기가 아직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며, 자기도 친구처럼 한글을 잘 알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

잘했다고 해야 할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 대략 난감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받아쓰기 100점 맞기 프로젝트에 돌입해서 매일 학교에서 가지고 온 유인물에

10번씩 읽고 쓰기, 소리 내어 책 5쪽 읽기 등등으로 한글 완전정복에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7세 이전에 학습지나 다른 사교육의 도움 없이 교육을 한다는 게 수나 문자 교육에서 많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 오히려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습득하는 면이 더 월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큰아이를 겪고 나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햇빛어린이집의 교육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둘째 아이는 한 살부터 일곱 살까지 더 철저하게 햇빛의 자연인으로 자라서인지 더욱 수나 문자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오히려 아이가 욕심이 있고 야무져서 그런지 스스로 잘 해내어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후배 어머니들께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아이들을 믿고 지긋이 기다려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합니다!” 🌸



# 빛나는 2019, 여럿이 함께

- 62 슈필라움
- 63 어린이집 평가제
- 64 내부강좌
- 69 센터 소모임
- 70 신간도서 및 도서 소개

## 어린이들의 자유놀이 공간, 슈필라움(Spiel·Raum)

임은화  
(용산구 꿈꾸는 어린이집 원장)



지난 독일연수 중에 피클러 놀이공간 견학을 다녀왔다. 피클러 여사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아이의 발달에 맞는 피클러 놀이기구를 창안했다. 영아의 신체 크기에 맞는 것은 물론이고 영아의 움직임과 발달에 적합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도전하고 새로운 과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가 가능한, 말하자면 개방성을 가진 놀이기구이다. 이런 공간을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6층에 만들었다. '놀이 공간'이라는 뜻의 독일어 '슈필라움'이라고 이름 지었다. 용산의 발도르프 영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40분 정도의 자유놀이를 경험하고, 마지막 주에는 교사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느끼고 배우고 새롭게 알아간 점들을 나누었다. 1차로 용산 꿈꾸는 어린이집이 참여하게 되었고, 참석 후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웠다.

1. 영아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최대한 보장하자.
2. 문제 상황에서는 먼저 영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자.
3.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개입을 최소화하자.
4. 따스함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이 분명 잘해 낼 것이라고 신뢰하자.

아이들이 처음 이 공간에 들어가 놀


이를 할 때에는 각 아이가 성격에 따라, 또는 발달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낮을 가려 선생님 곁에만 있는 아이, 계속 돌아다니며 탐색하는 아이, 높거나 낮은 놀이기구에 계속 도전하고 경험하는 아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찾아 놀이를 시작하는 아이 등으로 다양했다. 어린이집에서 자주 친구를 물던 아이가 갈등 상황에 놓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선생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기다려 주었다.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니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 다른 놀이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또한 늘 물던 아이는 넓은 공간에 가서 놀이하고 탐색하느라 바빠서 인지 묻지 않았다. 놀잇감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기다려주었더니 포기하기도 하고 끝까지 쟁취하기도 하며 스스로들 갈등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질수록 아이들은 공간에 익숙해졌다. 4살 아이들은 친구들과 협력놀이를 더 재미있게 하고, 3살 아이들은 자신만의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4살 아이들은 매주 슈필라움에 가는 시간을 기다렸으며, 4차까지 끝났는데도 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은 영아들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투고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잘 놀이할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며 놀이를 관찰하였다.

차수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발달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영아의 개별성을 온전히 더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놀이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피클러 박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 느끼면 자신의 내적 능력을 다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슈필라움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드러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건강한 아이라면 문제 상황에서 건설적인 선택을 한다는 피클러 박사의 말처럼,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니 스스로 방법을 찾았다. 놀잇감 또는 놀이 방법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교사가 아이들의 해결을 기다려주었고, 때로는 아이들이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사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 스스로 다툼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아이들과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었던 이 슈필라움 체험을 되돌아보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의 자유놀이에 적용할 점들이 무엇일지 찾아보았다. 자유로운 움직임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아이 스스로 선택한 놀이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까 교사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찰해야 할까, 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발도르프 교육과 "어린이집 평가제" 교육 후기

최현진

(용산구 자연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8기 졸업)



2005년부터 시행된 평가인증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및 체계 정비를 위한 관리 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인증에 참여하는 것이 큰 부담이긴 하지만, 평가 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자연어린이집은 특히나 발도르프 교육을 지향하여 도입한 새로운 환경 구성과 교구, 하루의 리듬생활과 교사의 상호작용 중시 등을 실천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적인 평가인증 지표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인증 준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지표에 맞게 새로이 구성하고 아이들과의 리듬생활도 한 달 전부터 새로이 계획하고 실행하며 지표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 애를 썼다. 평가인증이 끝나자 아이들의 리듬은 불안정해져 있었고, 다시 발도르프 교육 현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도 생겼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다음에도 평가인증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그런데 2018년 9월 재인증을 앞두고 컨설팅을 받을 때, 새로이 만들어지는 지표는 발도르프 교육, 숲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이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알려져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2019년 6월 12일부터는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평가제가 되면서 의무적인 실행 사항이 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앞두고 새로이 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인지학센터와 동문화 주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기대감을 갖

고 참석하게 되었다. 교육은 서울시 육아종합센터장 이남정 강사님의 지표 강의를 시작으로 발도르프 교육 현장 사례 발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남정 강사님의 밝고 또렷한 음성으로 시작된 강의는 새로운 지표의 방향과 3차 통합 지표에서 달라진 점들, 지표 내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와 사례 등을 중심으로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패러다임이 지양된 새로운 지표들이었다.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철학인 영유아 존중이 새로운 지표의 큰 방향임을 알게 되었다. 큰 맥락에서 지표의 방향성을 알아듣기 쉽게 정리한 강의였다. 평가제 지표에서 영유아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존중에 대한 인식을 지표에 반영한 점, 진정한 자유놀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된 점, 각 원의 보육철학을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깊이 환영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성과 개별성을 고려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도 매우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발도르프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는 존중과 이해, 관찰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이 지표에 포함되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교육 현장의 리듬과 놀이 영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 평가제 준비 과정부터 절

차와 방법, 특히 서류 준비 중심으로 한 사례 발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으로 교육은 마무리되었다. 지표의 내용과 현장 사례 발표까지 듣고 나니, 이전 정말 발도르프 교육 현장 그대로 평가제를 준비해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섰다.

우리가 실천하던 대로,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 현장의 원래 모습 그대로 평가제를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도르프 교육을 잘 실천하면  
평가제가 쉬워 집니다.”

이혜련 원장님의 교육 내용 중에서

## 2019년 하반기 내부강좌 이모저모

### 독일어 강좌

이정희 선생님과 여상훈 선생님이 진행하는 독일어 B 1 과정에는 독일어 A 과정에서 "어려운 독일어"라는 벽을 넘은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센터가 제공하는 독일어 과정은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의 심도 깊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현지 연수와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가장 효율적인 학습 기회가 될 것입니다. "Übung macht den Meister!"



### 생생철학 시리즈

#### "아름다움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상반기에 여상훈 선생님과 함께한 "느끼다, 알다, 행동하다 - 인류의 정신사에 던져진 물음과 답변들" 시리즈가 이제 "아름다움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기쁨일 예술은 잠든 영혼을 일깨우고 불안한 지성을 위로하고 얽매인 정신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의 가슴과 일상이 줄곧 예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탐닉해왔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런 예술이 정말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일치할까요? 아름다움은 선택하여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추함은 악하여 언제나 우리를 예속으로 이끌까요?

"아름다움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리즈는 아름다움의 그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지, 또 그 무엇으로 인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확신과 의심을

두루 흔들어 드릴 하반기 생생철학 시리즈는 11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총 5회로 진행됩니다.



### 수공예

한은숙 선생님의 강의로, 하반기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열려있는 감각을 자극하여 상상의 힘, 성장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놀잇감을 함께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매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준별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 발도르프 놀잇감 만들기
- 판타지를 자극하는 인형극 만들기





### 음악 : 킨더 라이어 연주법

라이어는 아이들의 몸, 마음,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악기입니다. 이윤옥 선생님이 음악이론과 함께 연주를 지도합니다. 작은 하프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작은 울림을 느끼며 참가자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 <스페셜 강좌> 일반 성인을 위한 오이리트미 강좌

"네 존재가 빛나는 순간, 영혼은 자유로이 날아오르네."  
오이리트미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좌로, 정나란 선생님 지도로 10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 총 9회, 1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수업내용

- 오이리트미 기초 연습(언어/음악 오이리트미)
- 나를 끈게 세우고 빛으로 채우며
- 빛의 변화와 온기를 통해 직선과 곡선을 느껴봅니다.
- 걸음이 안정감을 이루며
- 깊은 것과 가벼운 것을 경험합니다.
-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하며
- 잠들지 않고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연습을 지속합니다.



###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환금과정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3주간 진행된 환금과정 <발도르프 영아보육의 핵심과 실제>에는 14개 기관과 개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영아보육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이 많아 원장님들과 교사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은 하프인 라이어 반주의 고요한 노래와 자장가, 습식 수채화, 양모공 만들기, 손 유희와 움직임 놀이, 계절 노래 부르기, 아롱이 인형 만들기, 그리고 이론수업으로 자유놀이와 관찰, 협력적 돌봄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알차고 유익한 강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마친 후 수료증과 함께 국제 발도르프 교육예술가 3급 자격 취득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 <특강 - 음악> 계절 노래 시리즈

이윤옥 선생님이 진행하는 특강은 "영유아와 초등저학년들을 위한 가을 노래"라는 주제로 슈타이너 5음계와 계절별로 아이들이 부르기 좋은 노래들을 배웁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움직임과 함께 올바른 발성법 지도를 곁들입니다.



## <자격 과정> 발도르프 예술 공예 강사 3급 킨더라이어

이윤옥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되는 킨더라이어 연주법과 현장 활용은 10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8회, 16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영유아 기관 교사와 학부모, 라이어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특강 - 가을 환경 꾸미기> 감각을 깨우는 계절 환경 꾸미기

자연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전 수업은 손석심 선생님과 함께 계절의 색채를 내적으로 경험하는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우리의 생명 감각을 강화합니다. 오후 수업은 한은숙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소재로 아이들의 촉각각 발달을 돕고 계절의 분위기를 담은 인형을 만듭니다.



# 새로운 소식

##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2019.1.1.~2024.12.31. 6년간)

2019.1.1.부터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CMS 후원, 출판 후원 모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학센터에 후원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슈필라움 (Spiel·Raum)

슈필라움이란 독일어로 '놀이공간'이란 뜻으로,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실현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용산구 어린이집 4개 기관(꿈꾸는어린이집, 우림별빛어린이집, 자연어린이집, 별빛어린이집)과 함께 인지학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루어지는 슈필라움에서 4주간의 자유놀이와 관찰을 통해 영아들의 고유성과 움직임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영아들과 내적으로 연결되고 어린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제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9월 7일(토) 센터에서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는 발도르프 교육이 어린이집 평가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강의와 사례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남정 센터장(서울육아종합지원 센터)께서 '보육과정과 상호작용'과 '보육환경과 운영관리'개정 내용의 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임은화 원장(용산 꿈꾸는어린이집), 이혜련 원장(구로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의 사례발표로 새로운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제를 준비하는 데 자신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 국제학술대회와 지역컨퍼런스

어린이집 평가제 전환과 누리과정의 개정으로 변화하는 보육현장에서, 발도르프영유아교육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지역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7일(토) 서울시 후생동 강당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12월 9일(월) 울산 북구청 12월 10일(화) 전라남도 화순 등에서 국제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한국인지학포럼

김훈태  
(슈타이너사상연구소 대표)



10월 모임(박지용 교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니면 자연법칙에 속박된 존재인가?”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우리는 이 질문에 주목해야 한다. 발도르프 교육의 실천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와 흄, 칸트, 헤겔 등으로 이어지는 근대철학은 과연 인간 존재의 본성을 밝혀냈는가? 철학자들은 무엇을 성취했고, 또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가? 인지학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무엇을 극복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한국인지학포

럼은 서양 근대철학의 흐름을 짚어본다.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기초》(루돌프 슈타이너 저, GA2, 한국인지학출판사)를 번역한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박지용 교수를 모시고 칸트 인식론(“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순수이성비판> 해설과 칸트 인식론의 철학사적 의미”)과 헤겔의 역사철학(“역사 발전의 동력은 인간의 이성이다 - 헤겔의 관념론적 역사철학에 대한 이해”)에 대해 9월과 10월에 다루었고, 11월에는 괴테의 세계관에 대해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위원장인 여상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2019년 상반기 포럼의 주제들(① 인간3구성론의

“정신”: 철학과 신학이 묻고 인지학이 답하다 ② 인간의 4구성체란 무엇인가? ③ 한국의 인지학 수용과 실천 가능성: 우리말로 생각해본 인지학의 용어들 - 얼, 낚, 몸(Geist, Seele, Leib)을 중심으로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첫 발도르프 학교가 설립된 1919년만큼이나 격변하는 시대인 오늘날 우리에게 인지학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한국인지학포럼”이라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깊어가는 가을, 한국인지학포럼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세계관과 인식론에 대해 이해하고자 열망하는 많은 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 소모임 도담도담

백선미  
(강서햇빛어린이집 학부모)



올해 어느 봄날 친구가 물었다.

“책모임 할래?”

마치, 밥 먹을래? 하고 묻는 것처럼……. 그게 무엇인지 생각도 않고 흘리듯 끄덕였다.

예비 모임 날, 이끌어주시길 선생님을 만나 셋이서 모임 횟수와 날짜, 모집 인원과 모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여러 책 중에 <발도르프 육아예술>이란 책을 선택했다.

새로운 시작을 어려워하고 게으른 내가 그렇게 함께 모임을 시작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첫 모임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구입한 책 표지만 노려보았다. 오랜만에 하는 독

서에 대한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이었다. 모임 전날 책을 겨우 펼쳤는데, 무겁게 쓰인 책이 아니라서 걱정보다 쉽게 읽혔다.


적은 인원이 모여 첫모임을 하던 날, 조금은 어색하지만 편안한 분위기에 안심

이 되었다. 사실 육아 책을 선택한 후 이미 영아 시기가 지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편안한 분위기에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었다.

책을 읽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들곤 했는데 모임에서 나누면서 위로와 공감도 받고, 이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인지 관찰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나누며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었다.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나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될 때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다. 책의 내용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이야기부터 즐거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픈 생각이 들었다.

좋은 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모임…….

“저희와 책모임 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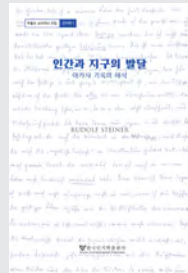
# 신간도서 및 도서 소개



## 인지학 영혼달력 루돌프 슈타이너 명상시 52편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8,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과 인지학의 창시자인 저자가 봄에 접어드는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1년 52주, 52개의 잠언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른 우주 순환과 자기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 가득한 연결을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 인간과 지구의 발달 아카샤 기록의 해석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발간위원회 옮김 / 25,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우주와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카샤”(우주 만물)에 새겨진 생성과 발달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인간과 지구의 발달을 설명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논집 <아카샤 기록으로부터>의 한국어 초역본.



## 발도르프 교육예술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17,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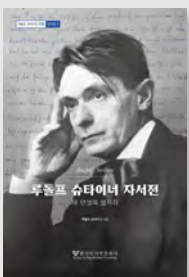
이 책은 런던에서 발도르프학교를 모델로 하는 초등학교 설립이 결정되었을 때 그곳 초대 교사진을 위해 이루어진 강연을 기록한 것입니다. 슈타이너 박사가 생전에 제공한 마지막 교육학 강좌로 주목 받는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을 증시한 발도르프 교육예술의 정수와 여러 교과목의 혁신적 교수방법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발도르프 아동교육 발달 단계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12,000원 / 발행 생크스마트

발도르프 교육론은 자유로운 생각, 자발적인 표현과 사고 안에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 철학이다. 이 책은 창의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 지침서가 될 것이다. -박수찬(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루돌프 슈타이너 자서전 내 인생의 발자취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장석길,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발간위원회 옮김 / 35,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학의 창시자, 인지학 설계자가 육성으로 들려주는 깨우침의 기록이자 고백록.



## 유아 그림의 수수께끼 성장의 발자국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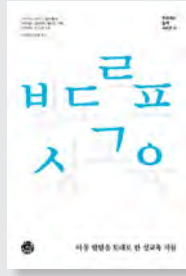
미하엘라 슈트라우스 지음 / 여상훈 옮김 / 2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교육의 고전, 영유아기 그림 언어에 담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열쇠.



### 철학·우주론·종교 인지학에서 바라본 세 영역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13,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 발도르프 성교육

아동 발달을 토대로 한 성교육 지침

마티아스 바이스, 엘케 쾰케, 미하엘라 글뢰클러, 볼프강 괴벨, 만프레드 반 도른 지음 / 이정희·여상훈 옮김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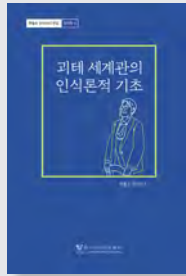
발도르프 교육학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심리상담 치료사가 교육적 관점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성의 발달에 어떻게 동행하고 성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 기본 방향을 안내합니다.



### 발도르프 육아예술 조바삼·서두름을 치유하는 거꾸로 육아

이정희 지음 / 14,000원 / 발행 싱크스마트

43가지 발도르프 육아 이야기 인지 위주의 학습을 멀리하며 자유로운 놀이로 아이 고유의 본성을 이끌어 내는 한편, 건강한 신체 발달을 이루고 자신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다.



###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기초 특별히 실러와의 관계를 참작하며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박지용 옮김 / 14,000원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유를 통해 "정신이 현실인 세계"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 슈타이너 인식론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 결론의 철학적 원천은 괴테 저작의 "내적인 확실성과 조화로운 완결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 철학과 신칸트 학파의 인식론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정신 세계의 현실을 지향하는 인지학이 창설된다. 슈타이너 인식론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전집 제2권의 첫 한국어 완역판.



### 신 인간 과학 우주 생명 정신을 주제로 한 석학들의 대화

한스 페터 뒤르, 클라우스 미하엘 마이어 아비히, 한스 디터 무첼러,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프란츠 M. 부게티츠 지음 / 여상훈 옮김 / 14,000원 / 발행 싱크스마트

신은 계속 '존재'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과학은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는가



### 셋다운! 미디어 정글에서 우리 아이 구하기

"diagnose: media" 지음 / 여상훈, 이정희 옮김 / 가격 미정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자 저주가 되었다. 이 책은 발달 단계에 따라 미디어가 아이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사례와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 그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디어 교육의 기초에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법률적 조연에 이르는 지침을 모두 담았다. 교육자와 부모의 필독서.



### 아들아 콘돔 쓰렴 아빠의 성과 페미니즘

이은용 지음 / 13,000원 / 발행 싱크스마트

아빠가 아들에게 전하는 솔직한 성과 페미니즘 이야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은 어떻게 전달하고, 몸은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려주며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성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 2020년 출간 예정 도서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 기초 (GA 2)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박지용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신비적 사실로서의 그리스도교 (GA 8)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꿀벌 이야기 (GA 351 후반)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신지학 해제 (GA 95)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슈타이너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신지학 (GA 9)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슈타이너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비밀학 개요 (GA 13)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슈타이너전집발간위원회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 〈발도르프 교육서〉

발도르프학교의 음악 수업  
슈테판 론너 지음 / 정나란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아우디오패드 - 듣기 예술  
라인힐트 브라스 지음 / 여상훈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발도르프 영아교육 지침  
라이너 파츨라프 외 지음 / 박성원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 〈피클러 영아보육학 시리즈〉

놀이와 학습  
모니카 알리 외 지음 / 이정희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기저귀와 작별하기  
유디트 팔크 외 지음 / 박성원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관찰·이해·동행  
유디트 팔크 외 지음 / 박성원 옮김 /  
발행 한국인지학출판사



#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2016년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발도르프 교육교재와 슈타이너전집 출간을 위해서 한국 인지학출판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발도르프 교육 운동의 질적 향상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슈타이너 타계 10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방대한 전집(GA) 354권 중에서 우리에게 긴요한 자료부터 번역, 출판하자는 뜻이 모여져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전집

출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출판 기금 마련과 자료 선정을 돕고 출간물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집출간위원회는 발도르프 교육의 확산과 인지학 정신문화 운동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과 출판 계획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1-710055 인지학출판사 \*1구좌 100,000원

###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2019년 9월 현재)

D.모로 H자이텔 M레버 P.랑 강자경 구태영 권금례 권영완 김꽃님 김미서 김백기 김세환 김송미 김수남 김현미 김용인 김윤희 김정임 김철기 김태영 김태희 김현주 김훈태 모명숙 박애란 박용옥 박춘신 석진미 선우숙 손석심 송광수 신동춘 신미현 신영주 안미순 안소희 여상훈 오경희 오해년 윤정원 윤정원 이기림 이미정 이상윤 이상희 이소영 이소윤 이연희 이연희 이윤옥 이은희 이정자 이정희 이지영 이진우 이창미 임지영 장구지 정다운 정다운 최계연 최분희 최종희 하건호 하주현 한미경 한은숙 홍명애 홍윤문 황인화 황창수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주)아이보트 투어 가정어린이집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 강서햇빛발도르프킨더가르텐 나임발도르프평생교육원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도서출판 씽크스마트 마리아의종 어린이집 미래숲유치원 발도르프프 유아교육동문회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교육부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서울발도르프연구회 어린이박물관카페 '도담도담' 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 이화영유아발달연구센터 이화유지원 인지학센터치유교육소모임 잇다자유학교 파팔라코리아 한울어린이집 향동발도르프킨가르텐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안내(7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뜨거운 응원



## 든든 버팀목 후원회원 1000명을 모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2000년 발족하여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기관회원, 개인 회원 회비, 든든 버팀목 후원금과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버팀목 후원회원님들 고맙습니다!**

### 기관 회원(연회원)

강남발도르프킨더가르텐(서울 강남구)

강남울현발도르프킨더가르텐(서울강남구)

강서햇빛킨더가르텐(서울 강서구)

고양이들 어린이집(서울 강서구)

교육공동체 작은동지(경기도 의왕시)

구립꿈마루어린이집(서울 강동구)

구립신정4동 어린이집(서울 용산구)

구립올림픽파크꿈벌어린이집(서울 강동구)

꿈꾸는어린이집(서울 용산구)

낙원어린이집(전남 화순군)

또래숲속학교(수원시 팔달구)

바람아래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서울 성북구)

반석어린이집(서울 용산구)

별빛어린이집(서울 용산구)

부천동그라미발도르프어린이집(경기 부천시)

빛의아이들킨더가르텐(인천 남동구)

사과나무어린이집(인천 계양구)

삼성발도르프어린이집(인천 남동구)

서마어린이집(서울 성동구)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서울 강서구)

서초구립아이숲어린이집(서울 서초구)

서초구립포레스타6단지어린이집(서울 서초구)

소사주공 어린이집(경기 부천시)

쉐마숲선교원(경기고양시)

슈타이너 사상연구소 김훈태(충남 서산시)

시립고양어린이집(경기 고양시)

아이조아 어린이집(경기 고양시)

오금숲어린이집(서울 송파구)

우림별빛어린이집(서울 용산구)

자연발도르프 유치원(인천 남동구)

자연어린이집(서울용산구)

정릉초록달아침 발도르프학교(서울 성북구)

초록나무어린이집(경기도시흥)

크니크니어린이집(서울 마포구)

큰다우리발도르프어린이집(서울구로구)

한빛어린이집(서울 중랑구)

항동발도르프킨더가르텐(서울 구로구)

해가람어린이집(경기도 고양)

행복한발도르프유치원(인천부평구)

화랑어린이집(서울 중랑구)

발도르프 교육 운동에 뜻을 함께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CMS 후원을 전화(02-832-0523)와 홈페이지(http://steinercenter.org/)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9-321956 (사)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소센터

버팀목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자

강성수 강아미 강애란 강윤숙 강자경 강환욱 강효은 고미숙  
 고민아 고혜경 곽세내 곽해정 구나래 구태영 권수자 권연주  
 권영완 권현정 권희정 길종각 김갑식 김경주 김계연 김관우  
 김광선 김근화 김길섭 김나래 김나현 김남희 김다혜 김덕윤  
 김도형 김동욱 김동중 김동현 김동현 김미미 김미서 김미정  
 김미현 김민영 김병철 김보라 김보민 김선아 김선주 김선집  
 김성숙 김세정 김세환 김세훈 김송미 김숙경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인 김용원 김윤미 김윤희 김은숙 김은실 김은정  
 김은희 김일선 김정순 김정연 김정임 김정희 김종욱 김종현  
 김주선 김지미 김지숙 김지영 김지은 김천숙 김태옥 김해련  
 김현경 김현자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김혜전 김훈태 김희연  
 김희정 남가희 남미영 남영순 남옥인 남주현 노재민 노지원  
 노택균 라경혜 류명숙 류미리 문소영 문영희 문지윤 문지은  
 민영숙 박동진 박미숙 박복실 박상연 박선영 박성숙 박세정  
 박소영 박수경 박승이 박용욱 박은영 박재용 박정열 박정은  
 박준성 박지원 박철완 박필용 박화연 박현정 박현철 박혜경  
 박혜영 배숙경 백경아 백미희 백선미 백선미 백수명 백수미  
 백승은 백승주 서경희 서미정 서승미 서지희 석은영 선우숙  
 설하영 손명희 손병숙 손석심 손옥진 송경수 송광수 송미령  
 송정은 송한울 신미현 신순영 신승혜 신영주 신은주 신인자  
 신정아 신지영 신현선 신효진 심기성 안만순 안명희 안병은  
 안봉균 안소희 안지은 안지환 안형주 안희정 양경미 양영주  
 양현정 여민정 연태순 오경희 오금희 오미진 오미희 오유진  
 오윤선 오지운 오혜년 오현숙 오화남 용소연 우수현 우영희  
 유미진 유병현 유상영 유선영 유주연 유혜영 윤서영 윤소영  
 윤양순 윤양순 윤영아 윤인영 윤인영 윤정원 윤진숙 윤창환  
 윤효원 이강두 이건희 이 경 이경옥 이남순 이대형 이동화  
 이명화 이미구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민아 이민영 이상아  
 이서경 이석미 이선주 이소영 이소윤 이소현 이수은 이연옥  
 이연희 이연희 이영선 이영숙 이예빈 이유선 이윤옥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혜 이재현  
 이정란 이정미 이정숙 이정자 이정희 이주영 이준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진우 이창미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희 이혜승 이해정 이화연 이환웅 임기홍 임명숙 임수진  
 임숙자 임승미 임영란 임우선 임윤희 임은정 임은진 임은화  
 임정미 임지연 임지영 임채나 장서원 장선경 장세경 장수연  
 장은심 전귀옥 전난영 전민선 전영희 전정현 전혜정 정경임  
 정기옥 정나래 정나래 정다운 정명화 정 선 정수정 정수희  
 정윤미 정은경 정은미 정은미 정재영 정지민 정지영 정현남  
 조미연 조미영 조미형 조용미 조일석 조정하 조지현 조혜선  
 조혜영 지현애 진금주 차유미 차일순 최로사 최미나 최민호  
 최분희 최석원 최선호 최성희 최수진 최순영 최아름 최영순  
 최유미 최유진 최은애 최은영 최인숙 최정진 최주옥 최진형  
 최한희 최향락 최현성 최혜경 하주현 한기옥 한성호 한요엘  
 한은숙 한재용 한혜은 함숙주 허설향 허윤정 허인숙 허정희  
 허혜우 현상두 현진성 홍경희 홍귀자 홍명애 홍윤문 홍은정  
 황선호 황영순 황인화 황정임 황지연

도서출판 푸른씨앗  
 사단법인발도르프청소년네트워크  
 시립햇빛어린이집  
 씽크스마트  
 알프스어린이집 김현숙  
 온유어린이집  
 우림별빛어린이집  
 은혜어린이집  
 자연어린이집  
 (주)파팔라코리아  
 햇빛자연어린이집

2019년 새로 후원회원이 되신 분들

강애란 고도겸 구태영 권희정 김관우 김남희 김동현 김세정  
 김훈태 라경혜 문지윤 백선미 백승은 송미령 신은주 신인자  
 신정아 안소희 안지환 유혜영 윤인영 윤창환 이영주 이지현  
 임수진 정윤미 정은강 조미형 최한희 한수경 홍귀자  
 금호어린이집

\* 이름이 누락된 경우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를 찾습니다!



## 든든버팀목 후원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운동의 확산을 위해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의 든든버팀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든든버팀목 후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은 인지학센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발도르프 교육운동을 펼쳐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약속한 날짜에 해당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월 1만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후원자로 초대합니다.

##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는 2025년까지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의 저서와 강연록 등으로 이루어진 전집을 우리말로 번역·출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은 100,000원을 1구좌로 하는 일시후원입니다. 전집 번역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후원해주시는 방법입니다. 1구좌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금은 출판 및 번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한 번의 후원이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한국에 인지학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기 위한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CMS 후원, 출판 후원 모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학센터에 후원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후원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사진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0 우리빌딩 2층

팩스 02-832-0526 | 이메일 anthroposophy@hanmail.net | 카카오톡 steinercenter

문의 인지학센터 02-832-0523

#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 후원 종류 및 후원정보

\* 든든 버팀목 후원과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체크 (중복 가능)		상세 사항						
<input type="checkbox"/>	든든 버팀목 후원	정기 후원금(택 1)	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출금예정(택 1)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1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0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 후원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사람인 경우 반드시 예금주 동의란을 작성해 주세요. (신한은행 140-009-321956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input type="checkbox"/>	인지학 출판 프로젝트 2025 후원	후원금(택 1)	<input type="checkbox"/> 1구좌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2구좌 200,000원 <input type="checkbox"/> 자율구좌			원		
		후원 예정일	2019 년 월 일					
		입금자명						
		* 후원금을 직접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100 031 710055 인지학출판사)						

본인은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운동에 동참하고자 위와 같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동의 :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작성해 주세요. 예금주는 출금통장의 거래 날인이나 서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귀중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0 (신수동 47-17) 우리빌딩 2층 ☎ 02-832-0523 FAX 02-832-0526 E-mail anthroposophy@hanmail.net 홈페이지 www.steinercenter.org



# 2020 발도르프현장 해외연수 교육실습, 컨퍼런스, 집중세미나

2020년 해외연수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연수 A

### 독일 발도르프 유치원·학교 실습 및 인지학 현장 탐방(연수비 415만원)

일 정	2020년 5월 23일(토) ~ 6월 4일(목)(11박 13일)
대 상	발도르프 영유아·학교·오이리트미 교사양성과정 연수생(40명)
실 습 장 소	프랑크푸르트 발도르프 학교 및 유치원 현장 실습
현 장 탐 방	위버링엔 발도르프 학교(건축물 감상)·치유공동체 탐방(캠프힐)·괴테아눔·존네희프특수교육·치유센터 "데어 호프"·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발도르프 영유아교육대학
특 강 · 공 연	영아교육 피클러 모델 견학·오이리트미 공연 관람·교육 특강
문 화 탐 방	튀빙엔·하이델베르크 고성·괴테 생가

## 해외연수 B

### 국제 영아 컨퍼런스 참가 및 발도르프 현장 탐방(연수비 450만원)

일 정	2020년 6월 3일(수) ~ 6월 15일(월)(11박 13일)
대 상	영아교육·발달 전문가(30명)
컨 퍼 런 스	스위스 괴테아눔 2020년 국제 영아 컨퍼런스
현 장 탐 방	프린암 킵제 발도르프 영유아·학교 현장
문 화 탐 방	루체른·헤렌킵제 성·뉘른베르크

## 해외연수 C

### 부모교육상담사 강사과정 집중세미나(연수비 430만원)

일 정	2020년 6월 14일(일) ~ 6월 26일(금)(11박 13일)
대 상	발도르프 부모교육상담사 강사과정 연수생(20명)
세 미 나	프랑크푸르트 치유센터 "데어 호프"
문 화 탐 방	오스트리아 빈 인지학 현장

※ 모든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1. 신청서 :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제출(메일:anthroposophy@hanmail.net, 팩스02-832-0526)
2. 여권사본 : 연수 출발일 기준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3. 신청금 : **100만원 (신청 후 10일 이내)**
4. 잔금 : **1차 신청 마감 11월 30일(토) (★12월 이후 신청부터는 항공권 때문에 연수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2-164816 (예금주: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6. 환불규정 : 개인사정으로 취소시 항공사(여행사) 및 각 숙박, 예약처의 환불규정에 따름.  
\* 선착순 마감이며, 정원 미만일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1개 이상 신청 가능하며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 2020 해외연수 일정

5/23	24	25	26	27	28	29	30	31	6/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해외연수A 교육실습 ※																																		
											※ 해외연수B. 영아 컨퍼런스 ※																							
											※ 해외연수C 부모상담사 ※																							

※ 현지 출발·도착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물질 속에서 정신을,  
지상의 삶 속에서  
정신적 존재를 돌보는 일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 (1861-1925)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Center for Anthroposophy in Korea

040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0 (신수동) 우리빌딩 2층  
T. 02-832-0523 | F. 02-832-0526 | anthroposophy@hanmail.net

그림 출처: 바일에레벨도프킨더가르텐